

# 서울·경기지역의 조기-전기 편년

강 병 학  
중부고고학연구소

〈 목 차 〉

I. 머리말	2) I-2단계
II. 편년연구사	3) II단계
III. 단계설정	4) III단계
1. 단계설정 및 시기구분의 기준	5) IV단계
2. 단계설정	IV. 시기구분과 절대연대 제시
1) I-1단계	V. 맺음말

## I. 머리말

고고학에 있어 편년은 유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연구·추적해야할 과제이다. 아울러 계통성의 파악과 함께 역사적 고리를 꿰어 통시적인 연구를 하기위한 필수조건임이 분명하다.

최근 청동기시대 연구의 주요 쟁점은 미사리유형의 조기설정에 대한 타당성, 역삼동유형 중 이른 단계의 양상, 송국리유형의 기원과 확산, 수석리유형의 청동기시대 포함여부 등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동기시대의 편년 및 시기설정 문제, 그리고 기원 및 확산양상과 관련된 계통성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볼 때 문화변천과정의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이 인정되지만, 지역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지금은 이에 대한 연구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단초의 역할을 삼고자 본 학술대회의 주제가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경향에 부합되도록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서울·경기지역의 송국리유형 단계 이전의 단계설정 및 절대연대자료 제시를 통한 시기설정이 이루어졌다. 즉, 지역적 세부편년을 통한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광역편년 수립과 병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 행정구역상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성격을 보이는 몇몇 자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상자료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되 전기에 해당하는 환호와 분묘자료도 포함시켰다. 즉,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포함한 개별 주거지의 형태와 규모, 내부시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주거지 면적과 너비는 단계별로 의미있는 속성이 관찰되며, 내부시설은 노지의 수와 기둥시설, 추정 작업공의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출토유물 중 토기는 문양대의 구성과 호형토기의 기형을, 석기는 시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석검, 석촉, 석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단계를 설정하였다. 다만 금번 학술대회의 목적이 광역편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 새로운 편년안이나 시기구분을 제시하여 혼선을 주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이 발굴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말미에서는 각 단계에 따른 시기구분과 C14자료를 통한 절대연대를 제시하였다.

## II. 편년연구사

현재까지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청동기시대 전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2분기설과 3분기설, 그리고 4분기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각 시기별 편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초기설정과 관련된 돌대문토기단계의 연구와 송국리유형의 부재지역으로 알려졌던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세분이다.

먼저 2분기설은 1960년대 말 ~ 1970년대에 형성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된 전기-후기설이다. 즉, 전기는 비파형동검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문화와 각형토기,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를 표지로 하며, 후기는 세형동검문화와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으로 대표된다(林炳泰;1969, 後藤直;1973, 李白圭;1974). 이후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까지는 송국리유형의 발굴성과를 기초로 전기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와 공렬토기를 표지로 하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 중기는 송국리식주거지와 외반구연토기, 삼각형석도, 유구석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송국리유형, 후기는 점토대토기를 그 내용으로 설정하였다(藤口健二;1986, 河仁秀;1989, 宋滿榮;1995). 한편 李弘鍾(1996)은 송국리유형의 인식과 새로운 시기설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송국리유형과 점토대토를 후기로 간주하였으며, 정한덕(1999)은 가락동유형, 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을 각각 전기, 중기, 후기로 설정하여 송국리유형을 후기로 보았으며, 점토대토기는 철기시대의 시작으로 인식하였다.

2000년에는 안재호에 의해서 말기졸문토기의 요소가 잔재하고, 각목돌대문토기를 표지로서 하는 조기를 추가하면서 4분기설(조기-미사리식 돌대문토기 / 전기-가락동식, 역삼동식, 혼암리식토기 / 중기-송국리식토기 / 후기-수석리식 원형점토대토기)이 등장한다. 앞의 3분기설과 4분기설은 조기의 설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던 중 安在晔(2006)는 그의 박사논문을 통해 새로운 3분기설(신3분기설)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후기의 점토대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하면서 중기의 송국리문화를 후기로 재배치함으로써 조기(미사리식 돌대문토기)-전기(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토기)-후기(송국리식·검단리식토기)의 시기설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철기를 공반하는 수석리유형의 점토대토기 문화를 초기철기시대로 편년한 것이다.

실제로 이형원은 2009년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안재호의 신3분기설을 지지하였다가 2010년 신3분기설을 철회하고 다시 4분기설로 입장을 바꾸었다(李亨源 2010a·2010b)<sup>1)</sup>. 즉 송국리유형을 다시 중기로, 철기가 공반하지 않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후기로 재배열한 것이다. 이 4분기설은 최근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편 宋滿榮(2010)은 원형점토대토기와 철기의 출현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점토대토기 단계부터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하는 분기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송국리유형 후기설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한국 청동기시대는 전기-중기-후기의 3분기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sup>2)</sup>.

청동기시대 개시기와 전기 유형간의 관계를 다룬 朴淳發(2002)과 安在晔(2009)는 돌대문토기의 형식학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돌대문토기(전주)→긴 절상돌대문토기(분절상)→짧은 절상돌대문토기(절상)→뉴상돌대문”의 출현순서를 상정하였으며, 나아가 安在晔(2010)는 鷄冠·瘤狀돌대문이 존재하지 않는 미사리유형주거지군이 제1군, 계관돌대문토기시기를 2군, 류상·변형돌대문토기 시기를 3군, 한반도화한 가락동계 이종구연이나 구순각목이 시문된 토기군을 4군으로 구분하였으며, 1~3군은 청동기시대 조기로, 4군은 전기의 시작으로 설정하였다. 千羨幸(2005)은 돌대문토기는 무문토기시대 초기부터 전기까지 지속성을 가지면서 전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천강유역과 구룡강유역의 가장 이른 제1문화층에서 절상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고, 제2문화층의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에서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들어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의 선후관계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安在晔(2000), 천선행(2007), 이형원(2007a)은 조기를 신석기시대 말기의 요소와 공존하는 돌대문토기 단독기로 구분한 반면, 宋滿榮(2010), 김장석(2008), 김현식(2008)은 미사

1) 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이 시차를 두고 남한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박진일;2006·2007)를 받아들여 세형동검에 앞서 점토대토기가 우선 유입되는 단계를 후기로 본 것이다.  
2) 단,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조기설정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유형과 가락동유형 사이에 시차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김장석은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토기의 시차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인 조기를 인정하는데 유보적이고, 김현식은 미사리유형과 가락리유형 모두를 조기로 설정하고 혼암리유형부터를 전기로 파악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김현식과 마찬가지로 金炳燮(2009) 또한, 조기를 전기 무문토기의 요소를 포함하여 설정하고 있다.

다음, 주거지의 형태 및 돌대문토기의 속성을 분석하여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파악한 연구자 중 천선행(2007)은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노지형태,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조기의 특징을 설명하였고, 현대환(2012)은 금강유역 돌대문토기 관련유적을 검토하여 각목돌대문토기→절상돌대문토기→파수부토기의 흐름 상정하고 절상돌대문토기의 확산시점을 가락동유형의 파급시기로 이해하였다. 朴榮九(2012)는 강원 영서지역 조기 주거지의 노지는 원형석상위석식노지→(방형)석상위석식노지→(장방형)석상위석식노지→(방형)위석식노지→수혈식노지의 순으로 보았다. 유물과 관련하여 金材胤(2003)은 돌대문토기 구연단의 형태(평평→호상), 돌대의 부착위치(이격→연접) 및 단면형태(두툼→납작), 기형(구연외반→직립→내반)분석을 통하여, 千羨幸(2005)은 돌대의 위치(이격→연접)로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安在晔(2009)와 김현식(2008)은 각목돌대문에서 구순각목문으로의 변화를 상정한 반면, 孔敏奎(2011)는 구순각목문이 이중구연단사선에 후행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정원철(2012)은 중부지역 돌대문토기의 속성분석을 통하여 총 3단계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1단계(돌대이격, 이중구연, 외반구연무문)와 2단계(돌대연접, 이중구연, 외반구연무문)를 조기후반으로, 3단계(구순외단각목, 공렬·구순각목 공반, 가락동계 이중구연)를 전기전반에 위치시켰다.

중부지역 역삼동유형의 변천양상과 송국리유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심에는 이진민과 김한식이 있는데, 김한식(2006)은 석기 구성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李眞暎(2004)은 주거지 구성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역삼동유형을 역삼동 I기와 II기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역삼동유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고, 후자는 송국리유형의 출현에 주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송국리유형의 부재로 알려졌던 중부지방의 역삼동유형을 세분함으로써 중기설정을 가능하게끔 하였다.

한편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세부편년에 대해서 李亨源(2009)은 미사리식 돌대문토기의 조기를 인정하면서 가락동유형과 역삼·혼암리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I기(전기전반), II기(전기중반), III기(전기후반)로 설정하였다. 가락동유형 I기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압도적인데 비해, II기는 단사선토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구순각목토기와 무문양토기가 증가하고, III기는 가락동유형의 전통을 잇는 한편 송국리유형 요소(외반구연토기, 일단경축, 석검 등)를 공반하는 특징으로 설정하였다. 역삼·혼암리유형 I기는 장방형주거지 단계로

공렬토기와 공반하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는 이중구연의 폭이 좁고, 단사선의 길이가 짧으며, II기는 세장방형과 장방형주거지 단계로 혼암리식토기가 주체를 이루며, 퇴화이중구연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았다. III기는 세장방형주거지가 중심을 이루며, 이중구연이나 단사선 요소가 거의 사라진 단계로 역삼동식토기(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가 주체를 점하는 시기로 위치시켰다. 宋滿榮(2010)은 조기설정의 가능성만을 열어둔 채 청동기시대 전기를 전기전반·중반·후반으로 세분하였다. 전기전반(BC 13~12세기)은 미사리식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로 거치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등의 문양이 단독 또는 복합문양을 이루며, 공렬문은 아직 출현하지 않는 단계로 보았다. 전기중반(BC 12~11세기)은 고식공렬토기와 혼암리식토기가 새로이 등장하는 단계로 세 가지의 유물복합체(①고식공렬토기 유물복합체, ②가락동식토기와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가 공반하는 유물복합체, ③혼암리식토기와 구순각목공렬토기, 공렬토기가 공반하는 유물복합체)가 병존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전기후반(BC 11~10세기)은 퇴화된 혼암리식토기가 표지적인 유물이며, 이와 함께 구순각목공렬토기, 공렬토기 등이 공반하는 혼암리유형의 마지막 단계로 구분하였다. 兩者는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주거구조와 취락론, 편년 등 청동기시대 이슈가 되어왔던 과제들을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 III. 단계설정

#### 1. 단계설정 및 시기구분 기준

단계설정에 앞서 연구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된 연구내용(宋滿榮 2010)을 근거로 필자의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청동기시대 조기설정을 인정하면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전술하였듯이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가 존재하고 이것이 편년적으로 가락동유형보다 이르다고 보는 견해(안재호, 이형원, 천선행)와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 사이에 시차가 없다는 견해(송만영, 김장석, 김현식)로 구분된다. 김장석과 김현식은 서북지역에서 동시기로 보았던 이중구연단사선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가 남한지역에서 시간 차이로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김장석은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토기, 그리고 공렬토기와의 시차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인 조기를 인정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인 반면, 김현식은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 모두를 조기로 설정하고 혼암리유형부터를 전기로 파악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편년적으로 가락동유형보다 각목돌대문토기가 이르다는 견해에 따르고자 한다.

둘째는 송국리유형 형성과 관련된 중기설정의 문제이다. 김한식과 이진민은 석기와 주거지 구성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역삼동유형을 역삼동유형 I 기와 역삼동유형 II 기로 구분하면서 후자를 중기의 시작으로 보았다. 나건주는 반송리식주거지를 전기와 중기의 과도기단계로 파악하고 중기를 휴암리식주거지 단계와 송국리식 원형주거지 단계로 세분하고, 이형원은 반송리식(先)과 휴암리식(後) 주거지 단계가 선후관계가 있지만 이를 묶어 중기전반, 송국리식 원형주거지 단계를 중기후반으로 세분하였다. 한편 송만영(2010)은 토기문양을 중심으로 중기전반(구순각목공렬토기단계), 중기중반(공렬토기단계), 중기후반(무문양의 심발형토기단계)으로 세분한 바 있다. 따라서 중기의 시작은 주거지 구조 및 특징으로 설명한 나건주, 이형원의 입장에서 중기를 설정한 후, 석기 구성상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김한식의 역삼동유형 II 단계를 일부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에 대한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시기구분은 새로운 요소의 출현시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견이 있고, 실상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들 요소가 각 시기를 대변하는 요소들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출현하는 요소들을 획기로 삼는 것이 가장 명쾌한 방법일 것이다(천선행 2007).

본고는 상기의 연구성과 중 서울·경기지역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을 받아들여 초기(돌대문토기 단순기, 돌대문토기 복합기) → 전기(가락동식토기, 역혼암리식토기, 역삼동 I 단계) → 중기(역삼동 II 단계, 송국리식토기) → 후기(원형점토대토기)의 4시기 구분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sup>3)</sup>.

## 2. 단계설정

### 1) I-1단계

I 단계는 하남 미사리유적을 비롯하여 가평 연하리, 인천 동양동, 화성 정문리유적을 들 수 있다. 관련 유적에서는 모두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아울러 이들 유적은 주거지의 형태 및 구조,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I-1단계와 I-2단계로의 세분이 가능하다.

3) 여기서 초기(미사리유형)-전기(가락동·혼암리·역삼동유형)-중기(송국리유형)-후기(수석리유형)로의 시기 설정을 유형중심이 아닌 토기문양과 역삼동 I·II 단계(석기 및 주거지 구조 중심)로 기술한 이유는 유형에 대한 개념 차이, 지역과 전통을 달리하는 유형간의 비교는 단계설정에 저해요소가 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형보다는 유구, 유물복합체를 편년단위로 설정하고 비교적 지역적인 편차가 적은 토기 문양을 편년 기준으로 삼은 宋滿榮(2010)의 연구방법론을 적극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4분기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현재의 연구결과로 볼 때 원형점토대토기의 유입시점, 세형동검문화의 형성시점, 철기문화의 유입시점이 상이(朴眞—2006·2007, 이형원 2010b)하기 때문에 점토대토기단계부터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하는 분기론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I-1단계 유적은 하남 미사리유적이 유일하다. 李亨源(2009)은 미사리유형의 개념을 “주거구조는 미사리식주거지(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에 板石敷圍石式爐址 설치)를 특징으로 하며, 토기는 미사리식토기(돌대각목문토기)를, 그리고 삼각만입석축이나 반월형석도, 편평석 부 등의 석기 등을 표지로 한다” 라고 정의 하였다. 도면에서 제시한 미사리 서울대A-1호, 고려대011·015·017·018호가 위의 미사리유형의 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주거지는 충적지에 조성되었으며, 장단비가 모두 1.50:1 이하의 평면 방형이다<sup>4)</sup>. 그러나 주거지의 규모는 소형에서부터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sup>5)</sup>, 고려대017호는 노지 및 기동시설 등의 주거지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기 유구를 제외하고 보면 면적 26~70㎡ 사이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최대치인 고려대015호를 제외하면 중심은 아마도 25~40㎡ 정도의 중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지는 석상위석식 노지가 단독(고려대001·018), 혹은 복수(고려대015)로 설치되거나 위석식노지와 함께 설치(서울대A-1)되고 있는데, 위치는 주거지 한쪽 벽에 치우쳐 있거나 양쪽 벽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기동시설은 고려대018호에서 깊이 2cm 내외의 기동받침 흔적이 관찰될 뿐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기동시설은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각목돌대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빗살무늬토기 기형의 환저토기와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없는 평저토기, 그리고 무문양토기가 있다. 석기의 출토량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삼각촉, 석도편 등이 있다. 미사리 출토 석촉은 모두 무경촉으로 기부가 평평한 것과 약간 오목한 것 뿐이다<sup>6)</sup>. 석도는 파손품으로 형태파악은 어렵지만 합인이다. 그 외 토제어망추(서울대A-1)는 양 끝단에 ‘V’자형의 홈을 낸 모양이 특징적이다<sup>7)</sup>. 또한 서울대A-1호에서는 다소 거칠게 다듬어진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강원 영서지역에서도 돌대문토기 단계에서 장식구류로 볼 수 있는 옥제품<sup>8)</sup>이 출토되고 있다.

출토유물 중 각목돌대문토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돌대의 부착 위치가 구순부에 접해 있는 것과 이격되어 있는 것이 공반 출토된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돌대문토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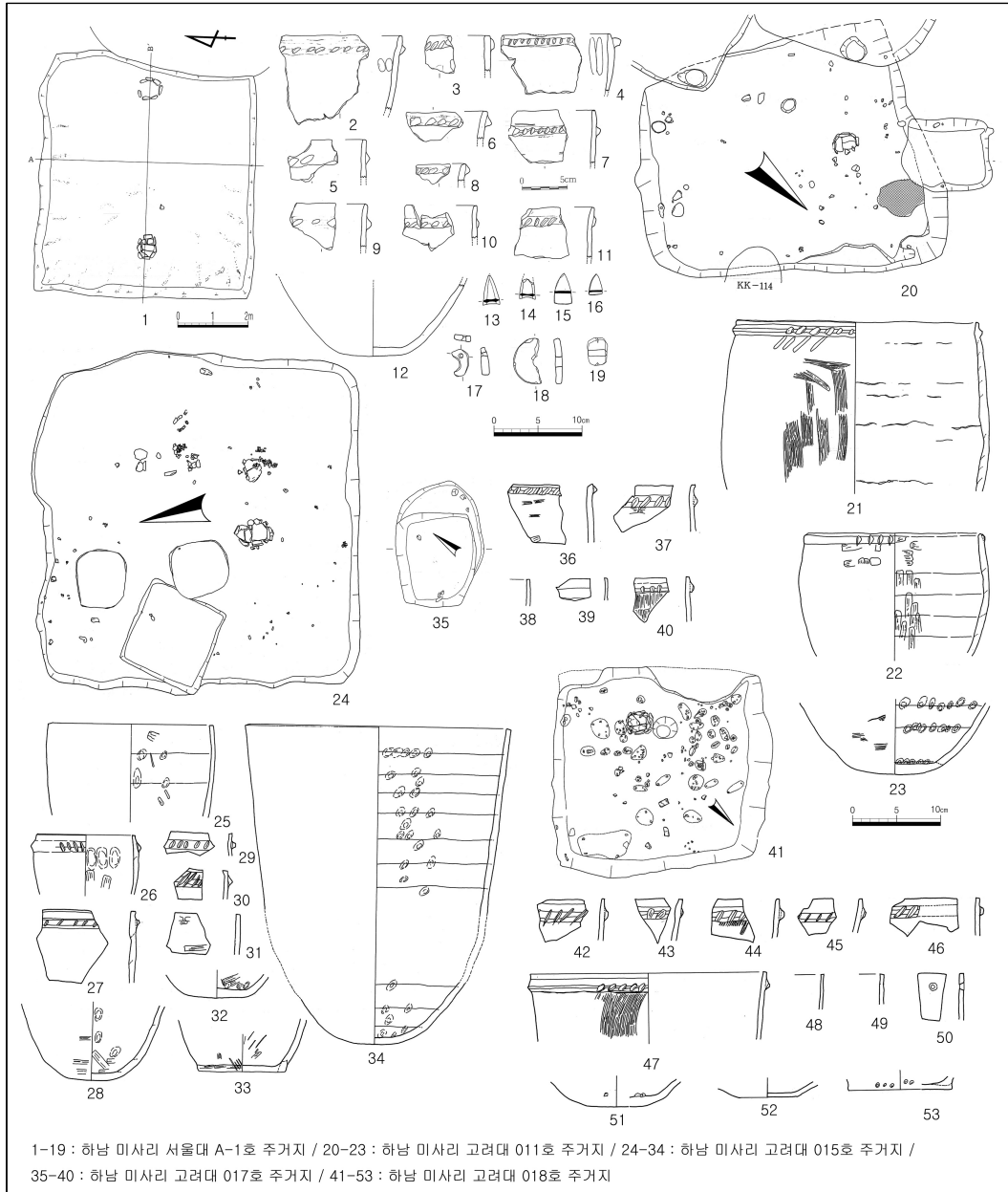
4) 주거지의 장단비와 면적 산출은 보고서 도면을 활용하여 주거지 바닥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파괴 주거지는 노지나 중심주혈 등 내부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011호의 도면과 보고서 기술상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 유구배치도를 비교하여 1/80의 스케일이 1/60로 잘못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한다.

5)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규모는 李眞旼(2004)의 분류안을 따랐다.  
평면형태:방형(장단비 1.5미만), 장방형(1.5-2.7미만), 세장방형(2.7-4.5미만), 초세장방형(4.5이상)/규모: 소형(24㎡미만), 중형(24-44㎡미만), 대형(44-75㎡미만), 초대형(75㎡이상)

6) 무경식석촉은 축신의 길이와 폭의 비율이 크지 않은 것이 비교적 이른단계에 출토되고 있으며, 전기로 가면서 축신이 세장해지고 기부가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7) 이러한 형태의 토제어망추는 후술할 I-2단계의 가평 연하리유적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8) 정선 아우라지 1호(원형)와 홍천 외삼포리 3호(장방형)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옥제품이 출토되고 있어 이른 단계부터 다양한 형태의 옥제품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도면1] 서울·경기지역 I-1단계(유구 1/200, 유물1/8 기준)

시간성을 반영하는 요소(金材胤2003;千羨幸2005;고민정2009)는 기형, 구연단 마감방법, 돌대의 부착위치, 각목의 형태와 시문방법 등이 주로 언급되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 정원철(2012)은 중부지방 돌대문토기의 단계를 설정하면서 상기의 연구성과 중 중부지방에서 시간성이 인정 되는 요소는 돌대부의 부착 위치만 유효하다고 보았다.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

지만 미사리유적 돌대문토기단계 주거지에서 출토된 돌대의 부착위치는 구순부에 연결한 것 보다는 이격되어 있는 것이 많아 보인다<sup>9)</sup>. 또한 각목은 대부분 右上에서 左下 방향으로 돌 대부에 한정하여 각목이 시문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부 수직으로 시문된 것(도면 1-22·40)도 관찰된다.

미사리유적의 상기 주거지들이 주변 유적들보다 시기가 빠를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내부의 한쪽 단벽에 치우쳐 석상위석식의 노시설이 있고, 토기 구성상 절상돌대문이나 瘤狀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토기 문양에 혼합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단독기라는 점, 마지막으로 신석기적 요소인 환저형태의 저부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형태 및 구조의 주거지가 존재<sup>10)</sup>하며, 토기 문양에 혼합양상이 관찰되지 않는 주거지는 미사리 외에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정원철2012). 그러나 신석기적 요소를 보이는 환저토기의 출토맥락을 인정한다면 방형의 중(대)형 주거지에 석상위석식 노시설을 갖추고 각목돌대문토기만 출토된다는 점, 그리고 석기의 양상은 불분명하지만 비교적 이르게 볼 수 있는 형태의 무경삼각촉의 존재와 아울러 그간의 연구성과를 비추어 볼 때, 앞선 단계의 문화요소로 보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 볼 때 I-1단계 유적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단계에 위치할 만한 유적은 없다고 보여 진다.

참고로 인천 을왕동 패총에서 침저형의 亂線文에 공렬문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어 전환기적 요소의 토기로 본다. 이러한 토기는 시흥 오이도 가운데살막 B패총과 인천 삼목도 I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을왕동 패총의 전체 토기량은 미미하지만 그 가운데 공렬문을 가진 구연부편이 11점이라는 점과 유적의 절대연대<sup>11)</sup> 등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 매우 늦은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시점이나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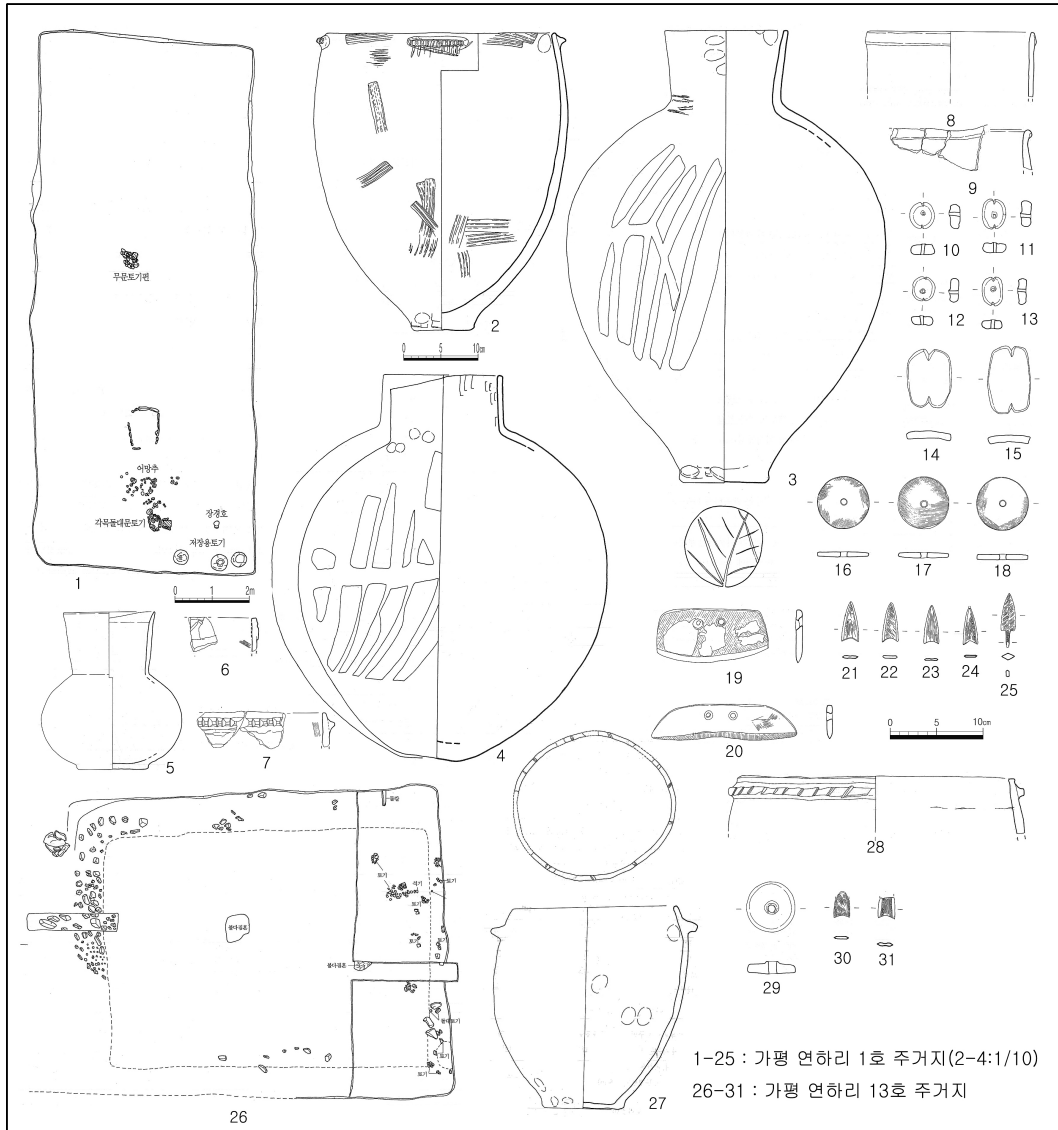
## 2) I-2단계

I-2단계 유적은 북한강유역의 가평 연하리유적과 중부서해안지역의 화성 정문리유적, 그

9) 서울대A-1호 주거지 출토 각목돌대문토기 구연부편 20점 중, 그 구분이 모호한 것도 있지만 1.0cm를 기준으로 볼 때 연결한 것과 이격된 것의 비율은 대략 13:7 정도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동일개체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과이므로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

10) 가평 대성리 26호주거지와 춘천 현암리 1호주거지가 방형의 주거지 평면형태에 석상위석식의 노시설을 갖추고 있다.

11) 총 3점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여, 각각  $3810 \pm 40BP$ ,  $4010 \pm 60BP$ ,  $4080 \pm 60BP$ 의 연대가 도출되었다. 이 절대연대는 청동기시대의 가장 이른 절대연대자료와 비교해 보아도 최소 500년 이상의 시간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경기지역에서는 고단계의 공렬토기 유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향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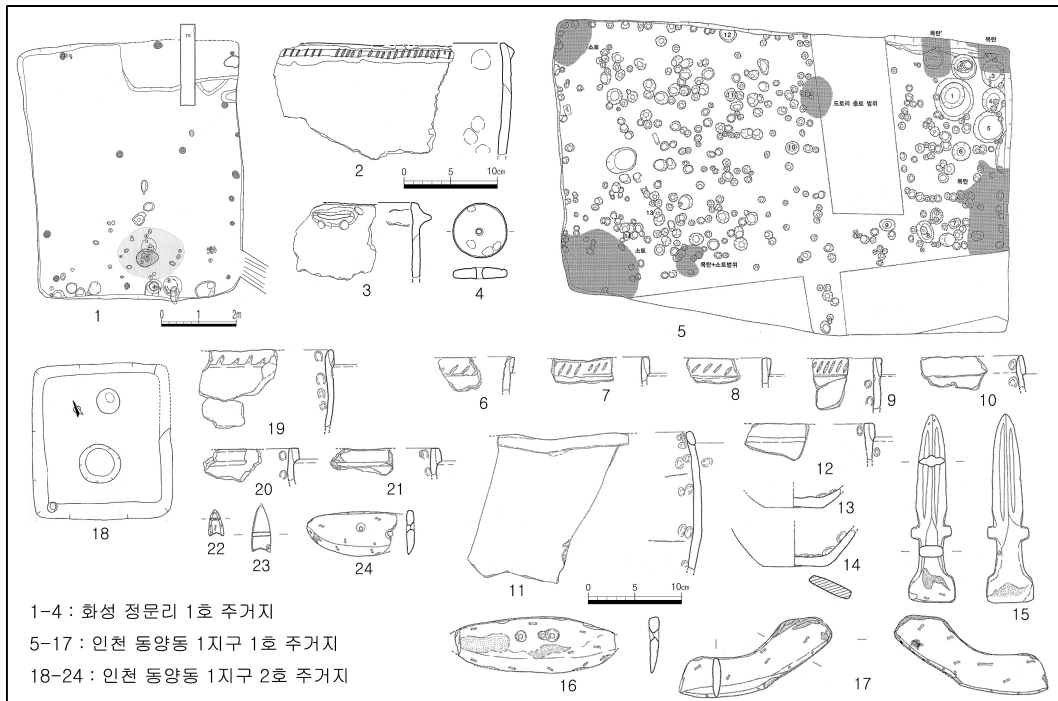


[도면2] 서울·경기지역 1-2단계①(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리고 인천 동양동유적이 있다. 朴淳發(2002)과 安在晔(2009)는 전술하였듯이 돌대문토기의 형식학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돌대문토기(진주)→긴 절상돌대문토기(분절)→짧은 절상돌대문토기(절상)→류상돌대문의 출현순서를 상정한 바 있다. 이후 朴淳發(2003)은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각목돌대문+절상돌대(A군)→절상돌대(B군)→절상돌대+공렬토기(C군) 순으로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정하고 가락동유형을 B군과 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미사리유형의 계보를 압록강 유역의 신암리Ⅱ기 및 심귀리·공귀리 I 단계에서 찾았다. 이에 따르면 I-1단계는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로의 비정이 가능하며, I-2단계는 박순발의 A군과 B군에 해당한다. 동양동유적은 무각목돌대문토기와 함께 이중구연단사선문과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며, 공렬토기는 아직 공반하지 않는다<sup>12)</sup>.

이 단계의 주거지는 I-1단계의 주거지가 층적지에만 입지하고 있는 반면 층적지 뿐 만 아니라 구릉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13)</sup>. 또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비가 2.41:1과 1.86:1의 연하리1호와 동양동1호가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지만 장단비가 크지 않은 방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1·2단계의 주거지 폭은 동양동 1지구 2호를 제외하고 모두 550~800cm 사이에 해당한다. 규모는 연하리1·13호와 동양동1호는 70m<sup>2</sup>가 넘는 (초)대형인데 반해 동양동 2호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에 면적 또한 15m<sup>2</sup>에 불과하지만<sup>14)</sup>, 중심은 (초)대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지의 경우 연하리1호는 위석식, 정문리는 무시설식의 노가 한쪽 단벽에 치우쳐 1기가 시설되어 있으며, 기둥시설은 없거나 비교적 불규칙한 벽주가 확인되고 있다.



[도면3] 서울·경기지역 I-2단계②(유구 1/200, 유물1/8 기준)

- 12) 하남 미사리유적 고려대018호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후대에 유입된 유물로 판단하고 있다.
- 13) 전술한 I-1단계 유적이 층적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사리유적에 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 14) 이 주거지는 노 등의 주거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작업공으로 추정되는 얇은 수혈이 확인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옥이 아니라 작업장 등의 특수건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유물 중 각목돌대문토기의 돌대는 모두 구순부에 연접하고 있어 I-1단계의 돌대 위치와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앞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무각목돌대문, 절상(무)각목돌대문,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문토기가 새롭게 나타난다<sup>15)</sup>. 이들 이중구연토기는 이중구연의 폭이 매우 짧고 도톰하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연하리1호에서는 폭 넓은 이중구연에 거치문(도면 2-6)으로 추정되는 문양요소도 관찰된다. 그 외 동체 상부의 어깨가 넓고 경부가 외경하는 기형(도면2-3)과 구형의 동체에 경부는 직립하고 저부는 축약이 생략된 형태의 호형토기(도면 2-4), 그리고 동체가 낮고 풍만하며, 경부가 외경하는 형태의 장경호(도면2-5)가 출토된다. 이러한 유물은 비교적 이른 단계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특징과 부합되지만 경부의 형태만으로는 조·전기 내의 세분이 어렵다<sup>16)</sup>.

석기는 석검, 석도, 석촉의 비교적 단순한 유물구성을 보인다. 석검은 동양동1호에서 동북형석도와 함께 출토되었는데 유혈구식이며, 병부와 신부의 두께가 두툼하고 마연이 거친 시원적인 형태의 석검으로 판단된다. 석도는 장방형석도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합인이다. 석촉은 연하리1호의 일단경촉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각만입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석기구성은 석기가 매우 적게 출토된 I-1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방추차와 어망추가 특징적이다. 연하리1호에서는 미사리 서울대A-1호에서 출토예가 있는 양 끝단에 ‘v’자형 홈을 낸 토제어망추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석제방추차는 두께가 0.5cm 이내로 매우 얇은 특징이 있다.

### 3) II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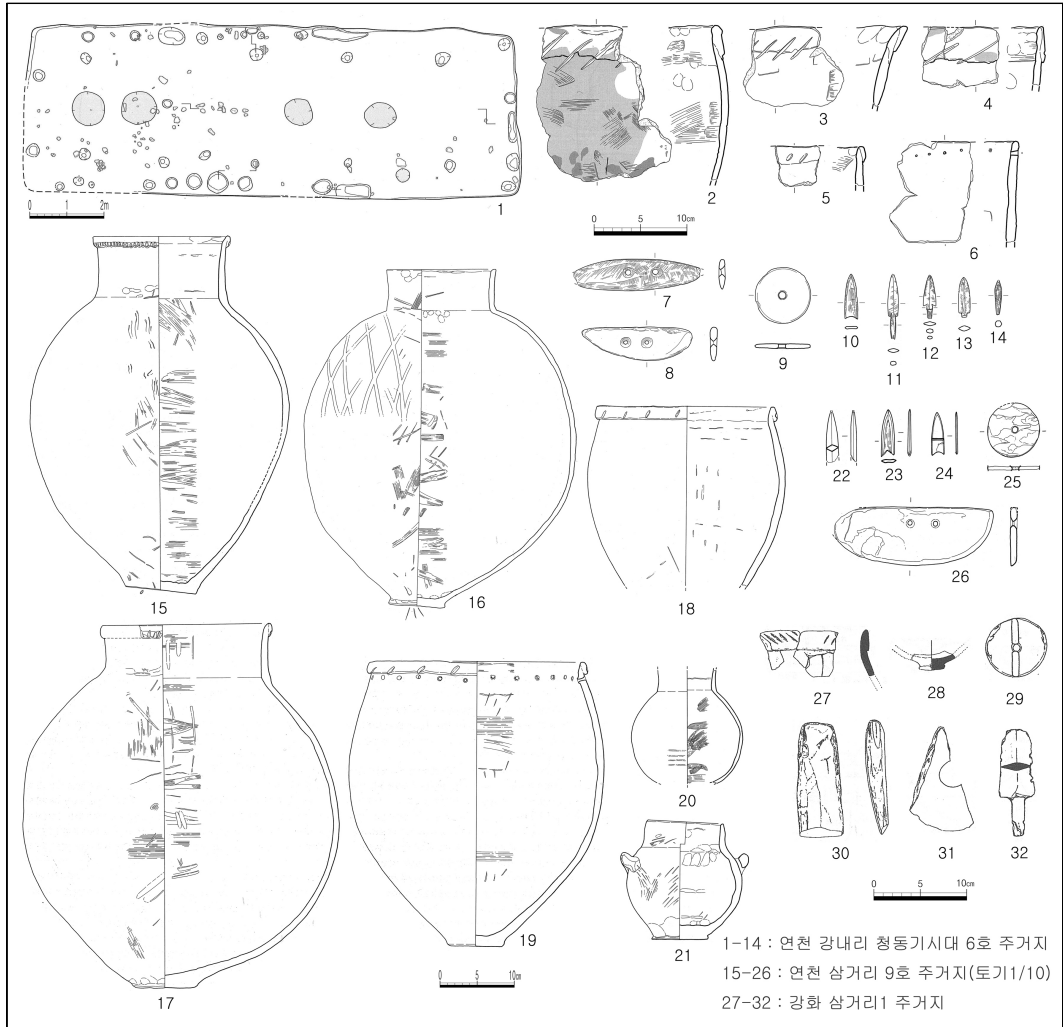
II단계는 지역별로 양상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이중구연계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이다. 임진강유역의 연천 강내리·삼거리, 그리고 강화 삼거리까지 한 지역권(이하 경기북부)으로의 포함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가평 대성리유적을 포함한 북한강과 한강본류권(이하 경기중·동부)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광주 장지동, 서울 가락동, 하남 미사리가 있다.

15) II단계에서 후술하겠지만 이중구연계토기는 경기서해안지역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돌대문토기가 주를 이루는 가평 연하리유적과 이중구연단사선문 및 이중구연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인천 동양동유적은 그 계통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계통성의 문제는 이중구연외반토기가 출토되는 II 단계의 대성리유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 호형토기의 경부는 직립→외경의 순서를 거쳐 송국리식 외반구연토기로의 변화를 상정하기도 하는데, 김한식(2010)은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양상을 검토하면서 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직립과 외경은 전기전반~전기후반에 걸쳐 병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전기전반에는 직립, 전기후반에는 외경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양상이 간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徐吉德(2010)이 지적하였듯이 호형토기 동체부 형태의 등장순서는 구형(연천 삼거리9호, 가평 연하리1호)→역삼각형(용인 봉명리, 서울 역삼동)→난형·타원형(안양 관양동, 화성 동학산·천천리)→타원형(파주 당하리) 순서로의 변화가 인정된다. 아울러 마연장경호의 경부는 전기에는 외경과 직립이 모두 확인되며, 중기로 가면서 내경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경기서해안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이하 경기서·남부)으로 인천 검단2지구·운서동·장금도패총, 김포 학운리·양곡1지구·운양동, 군포 부곡동, 평택 소사동이 해당한다.

II단계 주거지의 입지는 경기북부 및 중·동부에서는 구릉 및 충적지에서 동시에 유적이 확인되지만 (강)삼거리와 가락동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충적지에 입지한다<sup>17)</sup>. 반면 경기 서·



[도면4] 서울·경기지역 II단계①(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17) 서북한 지역 팽이형토기 주거유적은 하안과 인접한 분지나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인천 삼거리와 광주 장지동과 같이 임진강이나 한강유역의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어 집단에 따라 선호하는 입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서북한지역의 팽이형토기 주거지들이 집단취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1동씩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의 수습발굴이었으며, 장지동의 경우도 도로구간 일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향후의 발굴결과에 따라 이러한 취락의 형태는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

남부에서는 모두 구릉성 입지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와 장방형계가 중심을 이루지만 장방형계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sup>18)</sup>, 새로이 세장방형계도 출현한다. 규모는 대형과 중형, 그리고 소형이 모두 확인되지만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경기북부와 중·동부에서는 60㎡ 이상의 대형과 30㎡ 전후의 중형, 그리고 10㎡ 이하의 소형이 모두 확인되지만 대형과 소형에 집중되며, 경기 서·남부는 부곡동II지구1호와 소사동 라13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25㎡ 이하의 소형이다. 규모면에서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 반면 공통적인 특징도 있다. 즉, 면적 15㎡ 이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거지 폭이 400~600cm 사이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II단계 주거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지는 확인 가능한 것만으로 볼 때 석상위석식인 대성리25·26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설식<sup>19)</sup>과 미확인 것들이다. 기둥시설은 I-2단계와 마찬가지로 미확인과 벽주가 중심을 이루지만 새로이 내측주혈(강내리6호)과 중심주혈(양곡2호)이 출현한다.

출토유물은 이중구연계토기가 중심을 이루며, 그 외 돌대문토기, 혼암리식토기, 구순각목+공렬토기 등이 소수 출토된다. 즉, I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구순각목이나 공렬계의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일부 유적에서는 돌대문토기가 잔존한다<sup>20)</sup>.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팽이형토기와 가락동식토기의 요소가 같이 보이는데, 팽이형토기<sup>21)</sup>는 (연)삼거리9호, (강)삼거리, 장지동2호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연)삼거리9호에서는 혼암리식토기가 출토<sup>22)</sup>되어 이 단계부터 혼암리식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는 지역적인 차이 없이 가락동식토기의 요소인 이중구연토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중구연의 폭이 비교적 좁고, 두께가 두툼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단순 이중구연보다는 이중구연부에 단사선문이 시문된 비율이 월등히 많으며, 단사선문은 右上에서 左下 방향으로 이중구연부에만 한정하여 시문한 것들이다. 한편 대성리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연부가 외반하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어

18)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II단계의 17기 주거지 중 1기(강내리6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방형계로 방형 6기, 장방형 10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3기가 장단비 2.0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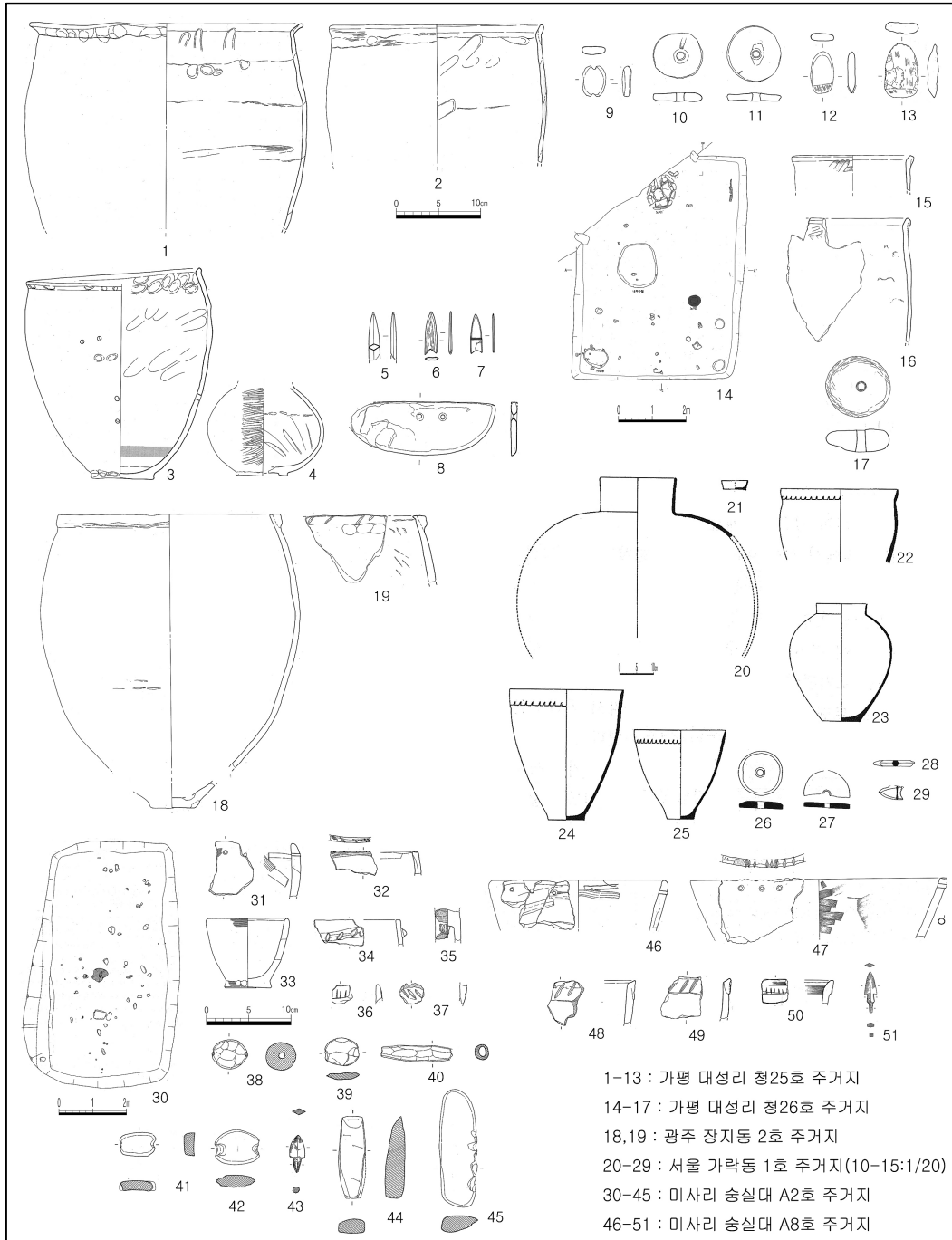
19) 무시설식노지 4기가 확인된 강내리6호를 제외하고 주거지 한쪽 단벽에 치우쳐 모두 1~2기에 한정되어 시설되었다. 다만 소사동라-13호는 장축벽에 편재하여 2기가 확인되었다.

20) 미사리유적 송실대A2호에서 각목돌대문토기 구연부편 3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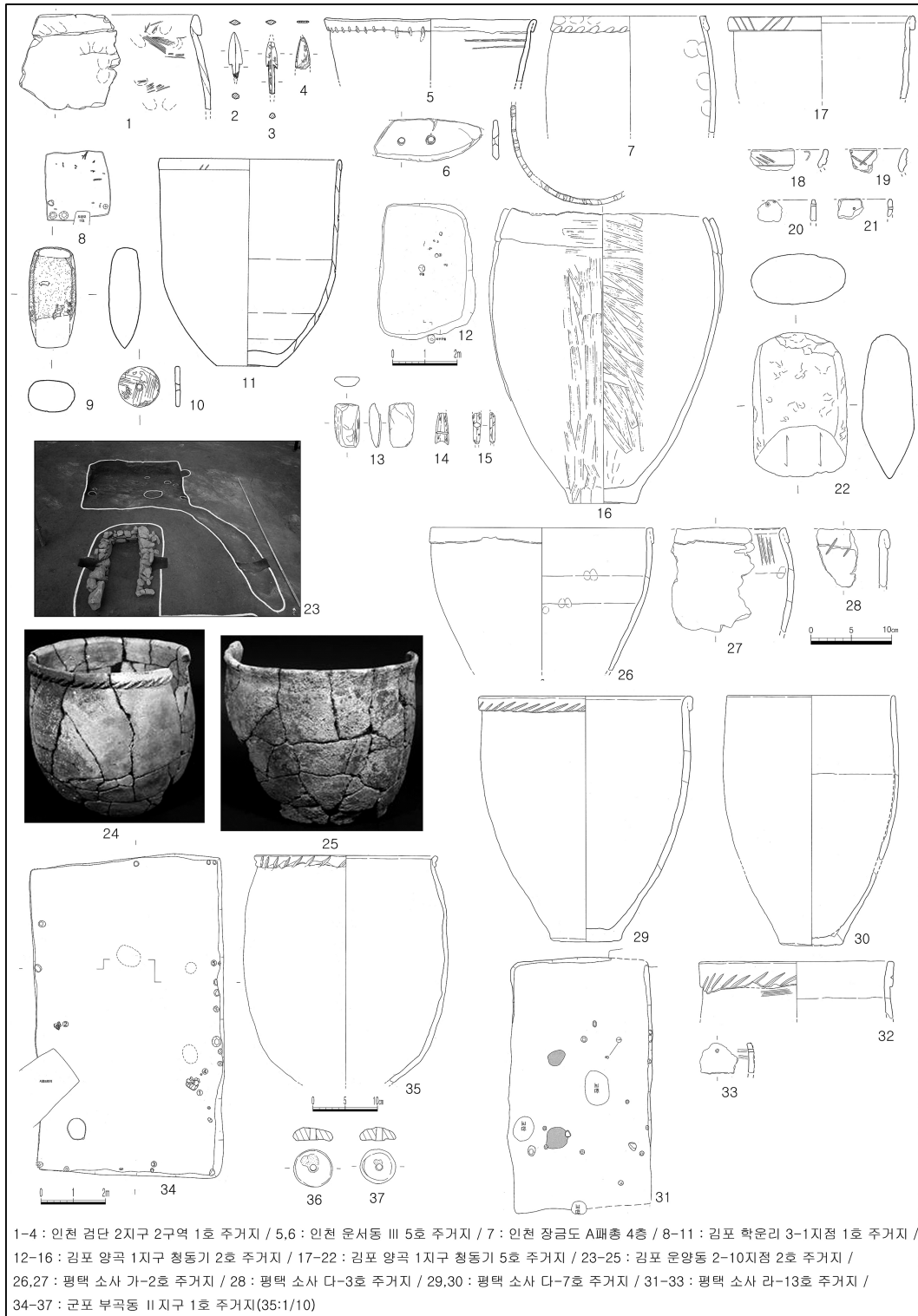
21) 전형적인 팽이형토기는 팽이처럼 부푼 동체와 좁은 저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구연과 이중구연에 사선문이 시문된 특징이 있다. 기형은 옹과 호가 있으며, 청천강 이남의 평안남도과 황해도지방이 주된 분포권이다. 최중모·김권중·홍주희(2006)는 각형토기문화유형을 주거지의 형태 및 구조, 공반유물의 형식변화와 절대연대자료를 바탕으로 기원전 13세기를 상한으로 하고 하한은 기원전 6세기로 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연천 삼거리와 강화 삼거리 출토품은 각형토기 문화가 주변지역과의 교류 내지는 접촉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마산리 출토품의 이중구연부 시문방식과의 유사성을 들어 2단계에 해당하는 기원전 12~10세로 설정한바 있다.

22) 혼암리식의 9호주거지(문양구성상으로는 이중구연+단사선+공렬요소가 혼합된 혼암리식토기에 해당하지만, 전체적인 기형이나 이중구연부의 형태 등은 팽이형토기에 가까움)와 역삼동식의 8호 주거지가 중복되어 있는데 9호가 선행한다. 따라서 중복관계상 혼암리식이 역삼동식에 선행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통 내만하거나 직립하는 이중구연토기의 기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형토기는 동체부가 구형이며, 경부가 직립하는 비교적 이른단계에 유행하는 기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면5] 서울·경기지역 II단계②(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도면6] 서울·경기지역 II단계③(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석기는 유구경식석검과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 역사다리형·어형·장주형석도가 출토되고 있으며, 그 외 두께 0.5cm 내외의 석제방추차가 공반출토 된다. 석촉의 형태는 다양화되지만 여전히 삼각만입촉이 주류를 이룬다. 석도는 I 단계의 장방형석도 양쪽을 사선으로 절단한 모양의 평면 역사다리 모양의 석도(합인, 편인)와 합인의 어형과 장주형석도가 확인된다. (강)삼거리 출토 마제석검은 유경식석검이다<sup>23)</sup>. 이 외에 석제방추차는 두께가 0.5cm 내외로 I-2단계보다 다소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 어망추는 미사리 송실대A2호에서 타원형의 자갈돌 양 끝을 타격한 형태와 동일형태의 토제어망추가 있으며, 球形과 筍形도 함께 보인다.

#### 4) Ⅲ단계

Ⅲ단계는 혼암리식토기를 표지로 하는 단계로, Ⅱ단계에서 유행했던 가락동식토기의 퇴화 이중구연화가 진행된다. 즉, 혼암리식토기와 함께 구순각목과 공렬의 문양요소가 혼합된 토기가 중심을 이룬다.

주거지의 입지는 미사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릉에 입지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부터 초세장방형까지 모두 확인되지만 장단비 2.0~4.0 사이의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주류를 이룬다<sup>24)</sup>. 그 외 방형은 안성 반제리에서, 초세장방형은 오산 내삼미동과 평택 소사동에서 나타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주거지의 폭은 분석 가능한 25기의 주거지 중 3기<sup>25)</sup>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가 300~500cm 사이에 집중한다. 규모 역시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모두 확인되지만 중형과 대형에 집중되어 있다<sup>26)</sup>. 내부시설 중 爐는 혼암리와 덕풍골<sup>27)</sup>을 제외한 모든 주거

23) (강)삼거리에서는 석검과 함께 환성석부, 주상편인석부, 석제방추차가 공반출토된다. 팽이형토기 문화권에서는 이른 단계부터 유경식석검이 출토되는데, 경부에 흠이 있는 점과 기부가 경부와 직각을 이루는 형태는 고연리와 남양리 등 주로 서북한지역 팽이형토기문화권에서 늦은 단계에 출현한다. 또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필자의 IV단계)부터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상편인석부가 보이는 점(평면형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후반 이후의 유적에서 자주 보이는 환성석부의 존재와 석제방추차의 두께가 I·II단계 출토 방추차보다 현저히 두껍다는 점은 팽이형토기 늦은 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다만 본 고에서는 II단계를 유지한다.

24) 총 25기의 주거지 중 방형 3기, 장방형 9기, 세장방형 9기, 초세장방형 4기가 있지만, 장단비 5.0을 넘는 초세장방형은 2기에 불과하다.

25) 덕풍골Ⅱ-1호와 반제리1호의 주거지 폭이 220cm이며, 이목동1호는 660cm이다.

26) Ⅲ기로 분석된 주거지 25기 중 소형 5기, 중형 8기, 대형 9기, 초대형 3기로 중형과 대형에 속하는 것이 17기로 약 70%를 차지한다. 다만, 파괴된 주거지는 내부시설을 기초로 복원한 추정치임을 밝혀 둔다. 또한 중형에 속하는 주거지는 면적이 30㎡ 내외, 대형은 50㎡ 내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7) 혼암리유적은 Ⅲ단계의 주거지들과 마찬가지로 무시설식노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파괴된 주거지가 많으며, 당시 조사의 성격상 상면까지 완전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 덕풍골Ⅱ-1호 주거지의 위석식노는 주거지 규모에 비해 노지의 규모(130×60cm)가 크고, 벽주혈에 인접하여 있으며, 보고서 기술상 노지의 내부가 아니라 주변에 불탄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지에서 무시설식만 확인되는데 대부분 한쪽 단벽에 치우쳐 2~3기가 중심이고, 많게는 6기까지 확인된다<sup>28)</sup>. 기동시설은 대부분 미확인이거나 불규칙한 소공들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벽주혈로 추정되는 것들도 상당수가 정연성이 없다. 다만, 혼암리7호, 이목동1호, 만정리 신기2지점 가-2호에서 비교적 정연한 중심주혈이 확인된다. 한편 반제리9호는 청동기시대의 7·8호와 초기철기시대 42호가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7호는 (초)42호와 중복관계를 보일뿐 8·9호와의 선후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先築된 9호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며, 後築된 8호에서는 퇴화된 형식의 외반하는 이중구연단사선토기로 추정되는 소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중복관계와 출토유물의 양상이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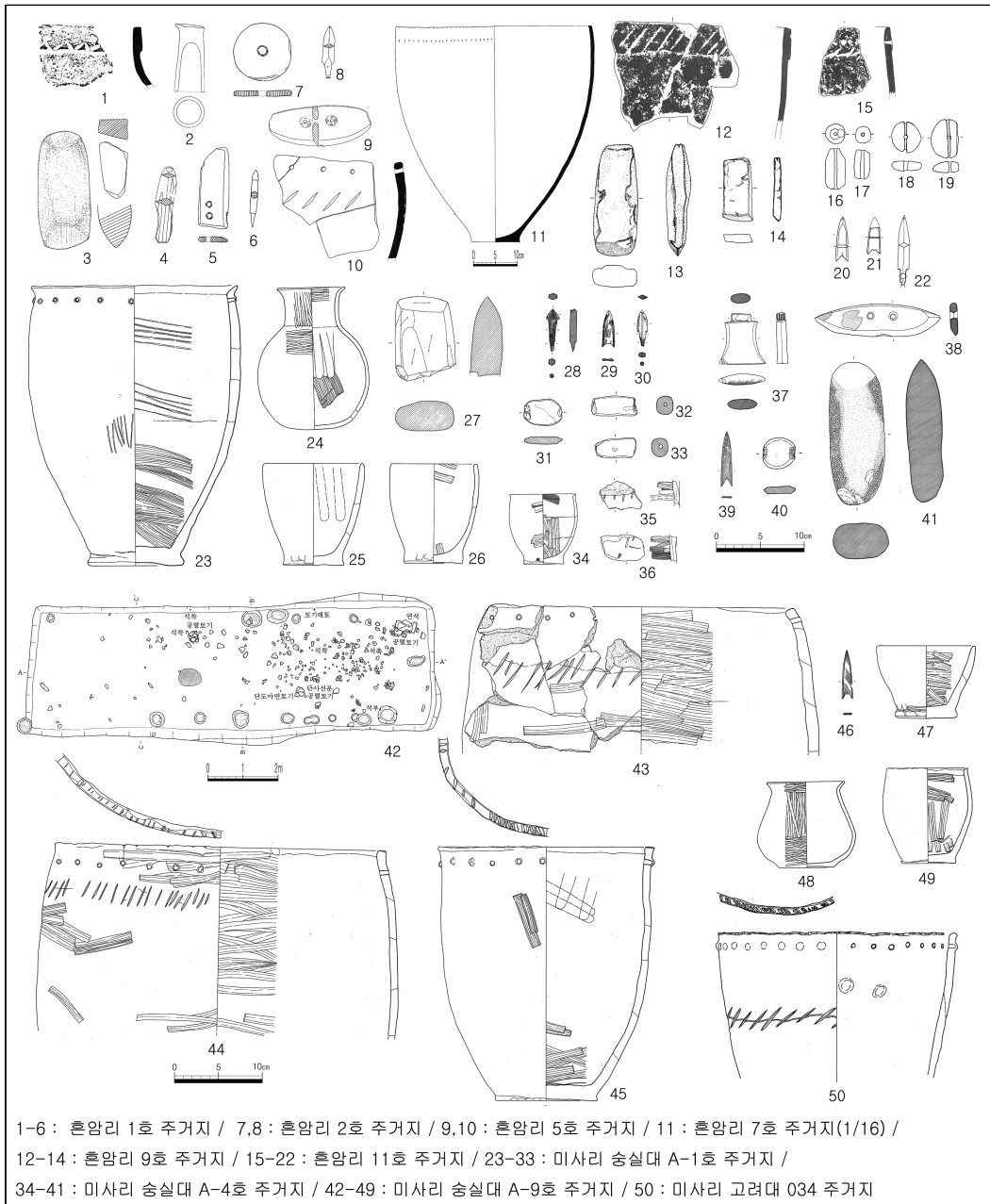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혼암리식토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이중구연의 퇴화현상이 관찰되며, II단계에서는 소수에 불과했던 구순각목+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공렬토기의 공반예가 증가한다. 전 단계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폭이 좁고 두께가 두꺼운 반면, III단계의 이중구연은 폭이 넓고 두께가 얇은 것이 특징이며, 여기에 공렬요소가 혼합된 혼암리식토기가 주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단사선계 문양의 구성도 이중구연부부터 동체부까지 시문된 단사선과 장사선이 함께 보이며, 그 외에 거치문, 단중선, 장중선, 거치문, ×자문 등 문양의 형태가 다양화된다. 호형토기의 기형은 직립 혹은 외경하는 경우에 동체부는 어깨가 넓은 역삼각형과 난형 내지 타원형이 함께 출토하지만 난형의 비율이 다소 높아 보인다. 그리고 I·II단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대부토기(단각, 장각)와 기고 10cm 내외의 소형 발형토기(무문양)가 다수 출토된다.

석기는 석검, 석부, 석촉, 석도 등이 있다. 석검은 이단병식마제석검이 출토되며, 석부는 합인과 편인이 모두 보이는데 합인석부의 횡단면은 대부분 두툼한 타원형이며, 편인은 평면 장단비가 1:1과 2:1의 방형, 장방형의 형태가 동시에 보인다<sup>29)</sup>. 석촉은 II단계와 마찬가지로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이 공반 출토한다. 다만 삼각만입촉의 경우 전 단계에 비해 만입 정도가 깊어지며 새로이 만입부 중앙에 돌기부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단경촉은 단의 경계가 확실하며 익부와 경부가 직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각인 것도 다수 존재한다. 석도는 모두 편인의 즐형·어형·주형석도가 있는데 그 중 편인의 어형과 주형석도가 주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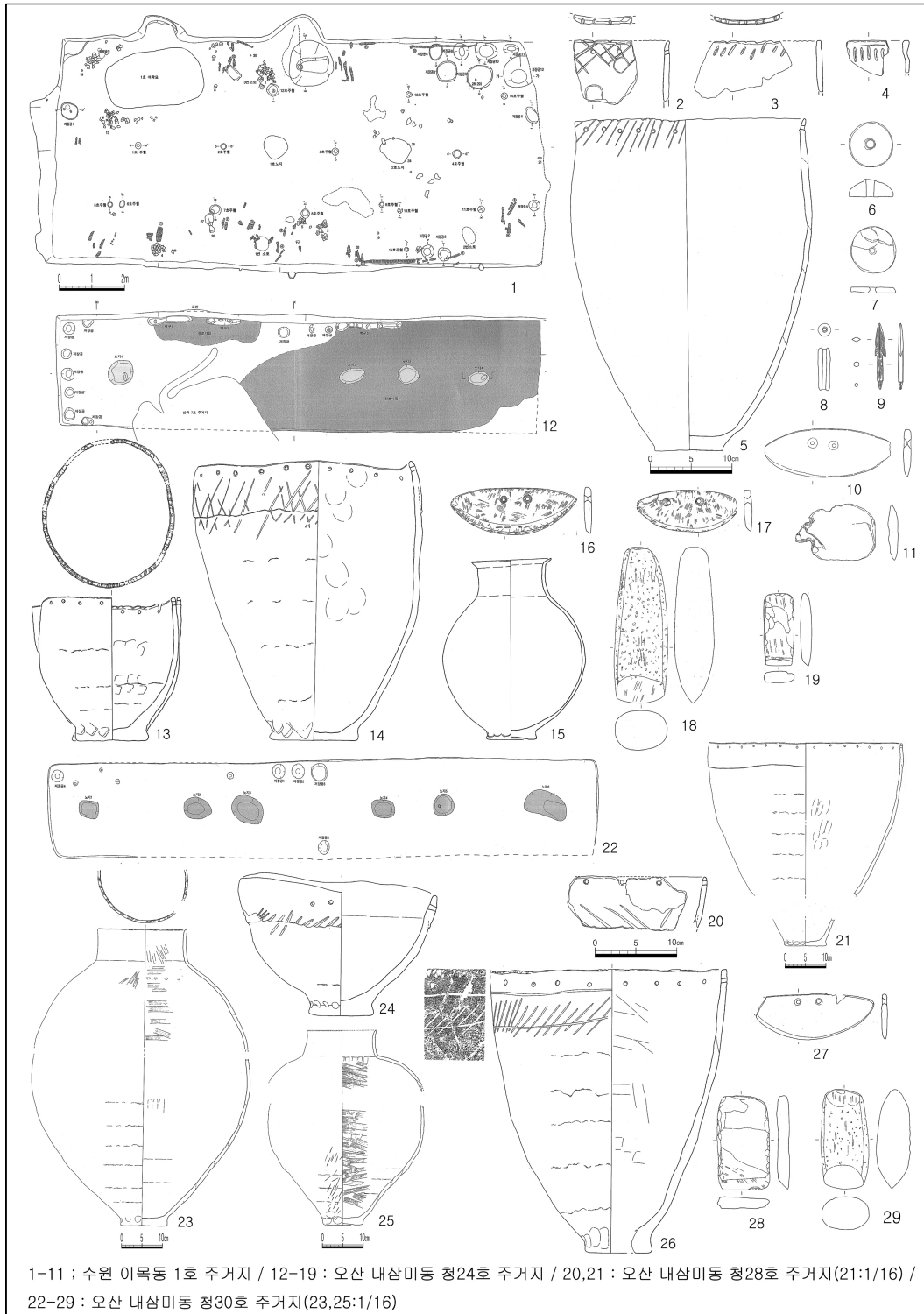
28) 내삼미동 2지점 30호와 소사동 라-4호의 경우 양단벽에 치우쳐 3기씩 총 6기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29) 홍주희(2012)는 돌대문토대 단계의 석기를 분석하면서 석부와 석촉의 경우 평면(장)방형, 단면 말각장방형 중심에서 전기 중엽 이후에 평면 제형과 타원형 등 형태와 크기에서 다변화 양상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본 고를 작성하면서 합인석부의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I단계는 불분명하며, II단계는 평면 말각장방형이 우세하고, III단계가 되면 평면(장)타원원형이나 제형이 출현하며, 단면이 II단계보다 두꺼운 것이 추가된다. IV단계가 되면 III단계와 동일한 양상이지만 새롭게 주상편인석부가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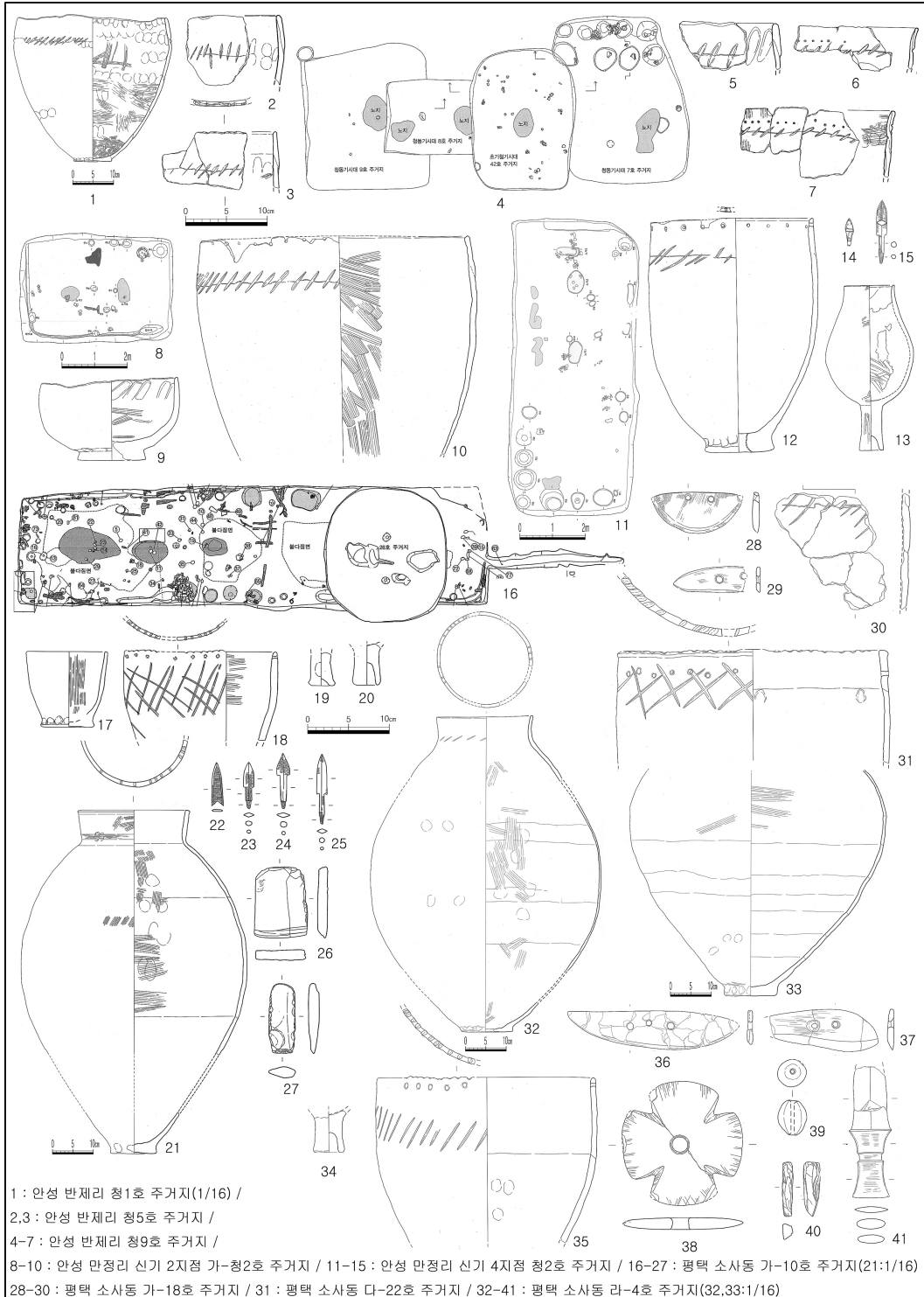
차지한다. 그 외 석제방추차는 두께가 1.0cm 내외에 집중되며, 단면 半球狀의 토제방추차도 출토한다. 토제어망추는 II단계와 동일하게 球形과 管形이 출토되지만 새로이 단추형이 추가 된다.



[도면기] 서울·경기지역 III단계①(유구 1/200, 유물 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도면8] 서울·경기지역 III단계②(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도면의 서울·경기지역 III단계③(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 5) IV단계

IV단계에는 주거지 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던 環壕<sup>30)</sup>와 분묘<sup>31)</sup>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토기는 구순각목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공렬토기의 역삼동식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단계로, 퇴화이중구연화<sup>32)</sup>가 일부 지속된다.

주거지의 입지는 주로 하천에 인접한 충적지와 단구, 그리고 구릉에서 모두 확인된다. 단구 및 충적지에 입지한 유적은 임진강변의 강내리와 (연)삼거리, 그리고 한강변의 미사리유적 뿐이다. 평면형태는 III단계에서 보이던 방형이 사라지며, 장방형부터 초세장방형까지 확인되는데 장단비 2.0~3.5 사이의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중심을 이룬다<sup>33)</sup>. 주거지의 폭은 단구나 충적지에 입지한 경기북부의 제유적과 중부의 미사리유적은 350~450cm 사이에 해당하는 반면, 구릉에 입지한 주거지 폭은 III단계보다 현저히 좁아진 250~350cm 사이에 집중한다. 규모는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모두 확인되지만 중소형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sup>34)</sup>하여 전체적으로 III단계보다 소형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구릉에 입지한 경기 중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주거지 폭이 현저히 좁아지면서 동시에 길이도 일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진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형태를 띤다<sup>35)</sup>. 노시설은 파괴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것과 일부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설식인데, 배치양상은 III단계와 동일하지만 노지의 수가 최대 11기(천천리7호)까지 증가한다. 중심은 2~5기이다. 아울러 IV단계 주거지 구조의 특징으로는 노지쪽이나 노지 반대편에 작업공(도면13-5·8·14, 도면14-3·12)으로 판단되는 깊이 10cm 내외의 수혈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다<sup>36)</sup>. 기동시설은 미확인, 벽주혈, 중심주혈, 벽

30) 주로 취락유적에서 방어용 물길이나 배수시설로 사용되었을 때는 ‘環濠’, 공간구획이나 경계시설 등의 역할을 한 마른 도랑형태는 ‘環壕’라 표기한다. 이 단계에 나타나는 환호의 성격은 후자의 경우이다.

31)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묘제는 고인돌과 석관묘, 옹관묘가 존재하는데, 입지나 규모면에서 고인돌의 피장자가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다는 점과 발굴된 유구수에 비해 화장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분묘는 출토유물로 볼 때 송국리유형단계와 병행하는 후기로 편년되는 것이 많다는 점과 남한강유역의 제천 능강리나 황석리에서 전기로 소급되는 고인돌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경기지역에서도 전기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이형원2007b).

32) 주로 장사선문과 ×자문이 동체 중단까지 간격이 넓게 시문되며, 이중구연의 형태는 거의 소멸된다.

33) 분석 주거지 61기 중 방형은 없으며, 장방형 28기, 세장방형 24기, 초세장방형 9기이다.

34) 61기 중 소형 17기, 중형 29기, 대형 11기, 초대형 4기로 나타났는데, 이 중 중소형이 46기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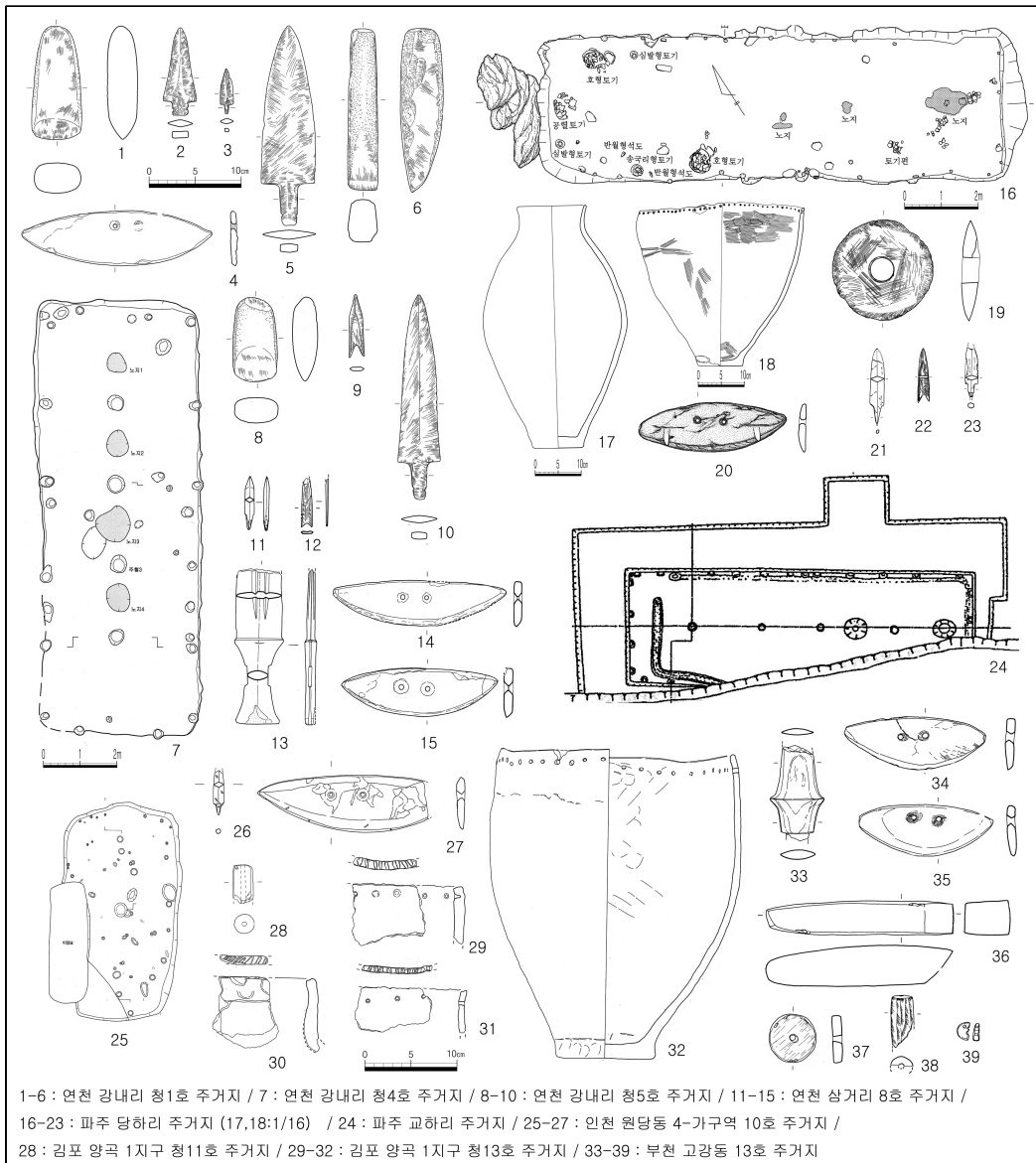
35) 전기후반의 취락은 대부분 대형취락이 많은데, 주거지의 구성은 중소형의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주거지가 균을 이루며, 일정한 공지를 공유하면서 대형의 초세장방형 주거지가 1~2기 주거군 내에 위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지만 주거지 61기 중 평면형태상 (세)장방형은 52기, 초세장방형은 9기이며, 규모면에서 중소형은 46기, (초)대형은 15기로 평면형태와 규모가 비율상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36) 남양동1호, 쌍송리8·21호, 내삼미동13호, 당현리2호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공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수혈은 최근에 조사된 화성 울암유적 4·9·13호 주거지에서 명확히 관찰되며, 배수로로 추정되는 벽구가 수혈쪽 단벽모서리로 돌출되어 있다.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 「화성 울암 산46-58번지 일원 공장설립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주혈+중심주혈로 다양하지만 벽주혈과 중심주혈의 배치양상이 정연해지며, 중심주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물 중 토기의 문양대 구성은 구순각목+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문이 주류를 이루지만 문양이 분리된 구순각목문과 공렬문, 그리고 무문양토기의 양이 전단계보다 증가하며, 일부 동체 중상부에 간격이 넓은 장사선문양 시문토기가 지속된다. 호형토기의 기형은 일부 구형과 역삼각형도 존재하지만 동체부가 타원형인 외반구연호의 출토량이 많다. 여기에 저부투공



[도면10] 서울·경기지역 IV단계①(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토기의 출토량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석기상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Ⅲ단계까지 보이지 않던 주상편인석부<sup>37)</sup>와 환상석부<sup>38)</sup>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신자료가 추가되면 다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는 IV단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석검은 유(무)혈구유구병식과 일단병식, 유경식 중심으로 석검의 형태가 변화하지만 이단병식석검도 일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석촉은 Ⅲ단계와 마찬가지로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이 모두 보이지만 이단경촉의 단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일단경촉의 출토율이 높아진다. 석도 역시 전 단계처럼 어형과 주형이 중심이지만 고강동13호 출토품처럼 인부 중앙에서 양쪽으로 직선화되는 단주형이 관찰된다<sup>39)</sup>. 방추차와 어망추는 Ⅲ단계의 형태가 지속되며, 새롭게 단면 반구상의 석제방추차(도면11-11)가 추가된다. 또한 IV단계에 들어서(물론 I 단계부터 출토되지만) 길이가 7cm 이상인 관옥<sup>40)</sup>의 출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4단계가 되면 환호시설과 분묘가 새롭게 추가된다. 환호는 쌍송리유적 환호가 유일한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호는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며, 방어용 외에도 의례와 관련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쌍송리 환호<sup>41)</sup>는 주변에 배치된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환호 내부에서 구순각목공렬토기편, 삼각만입촉, 일(?)단경촉, 합인석부, 대부토기 등 주거지 출토 유물조합상과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출입구로 판단되는 단절부분의 방향이 주거지가 조성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지와 동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42)</sup>. 분묘는 화성 동화리유적의 토광묘<sup>43)</sup>가 있다. 유물은 삼각만입유공석촉 2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형식의 석촉은 대전 둔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37) 배진성(2012)은 주상편인석부의 출현 시점을 전기의 이른 시기였던 역삼동단계부터로 보아 왔지만 역삼동유형이 더 이상 전기 전반에 한정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후기에도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자료가 늘어나면서 전기에서도 주로 후반으로 편년되는 유구에서 출토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포항지역(朴榮九 2009)의 주상편인석부 소속시기와도 일치한다.

38) 崔承希(2004)는 남한지역에서의 환상석부 출현 시점을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늦은 시기로 상정하였는데, 압록한 중하류와 요동반도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유행하며, 팽이형토기문화권에서는 팽이형토기 I 기부터 지속적으로 출토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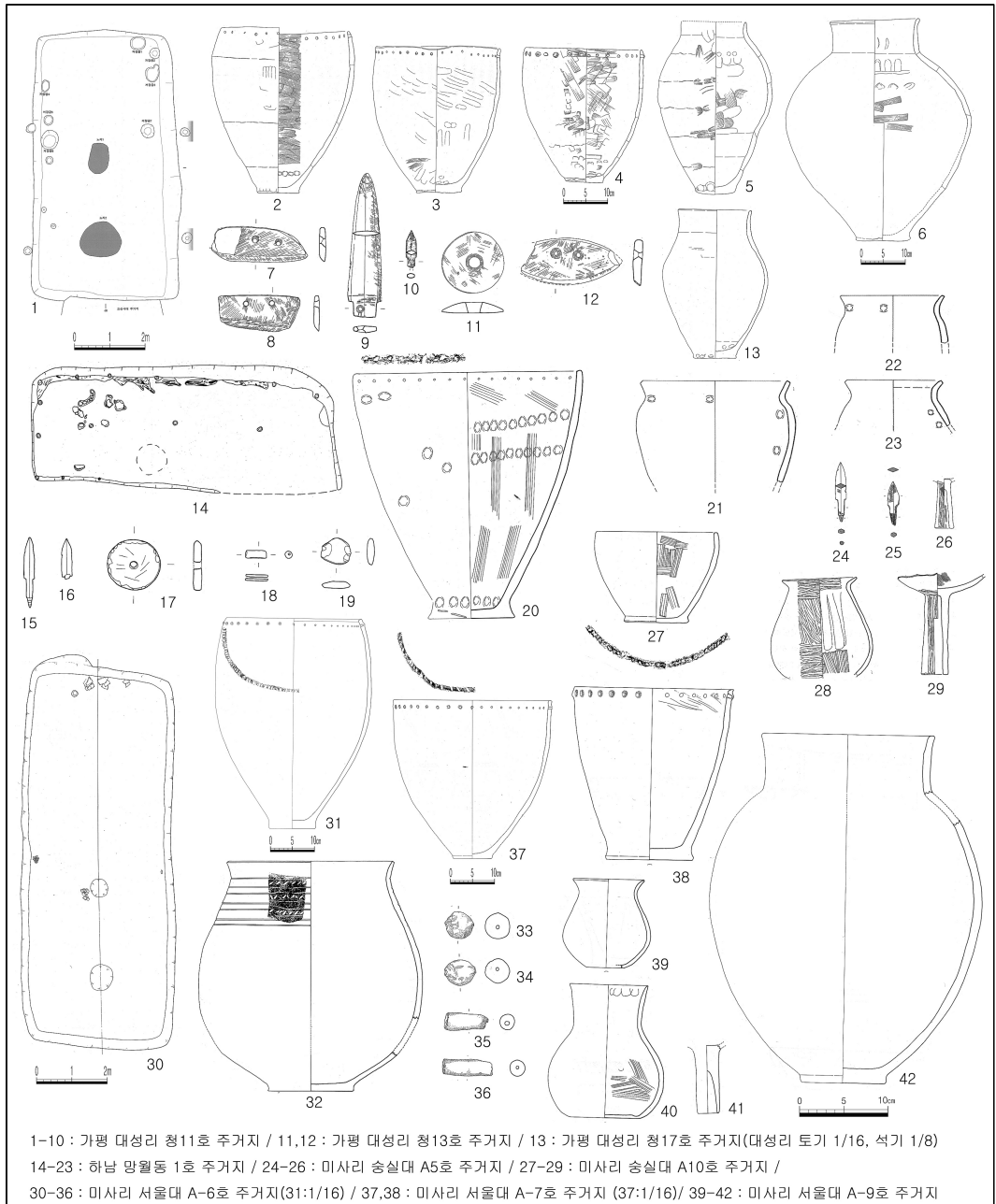
39) 예외적으로 대성리11호에서는 즐형과 장방형석도가 출토되기도 한다.

40) 완형으로 출토된 금곡동 1지점 3호와 18호 관옥은 길이가 약 8cm이다.

41) 구릉 정상부를 環形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지름 33m, 연장길이 100m, 최대너비 4m의 규모로 고지성 유형의 단독환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환호는 중부지방에서 고강동이나 반계리처럼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서 주로 확인된다. 환호의 성격은 防禦, 區劃(境界), 儀禮, 排水 등 다양하지만 의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의례의 대상이나 목적은 그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늘에 대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天神思想에 바탕을 두었다는 연구결과(徐吉德 2006)가 있지만 쌍송리 환호는 보고서에 따르면 어로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42) AMS절대연대측정값은  $BP2650 \pm 50$ 으로 주거지 측정 연대의 중심값보다 다소 늦게 나왔다.

43) 해발 약 34m의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성되었다. 규모는  $187 \times 66 \times 13$ cm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다. 내부에 소결된 혼적과 목탄 및 인골이 남아 있어 토광 내부에서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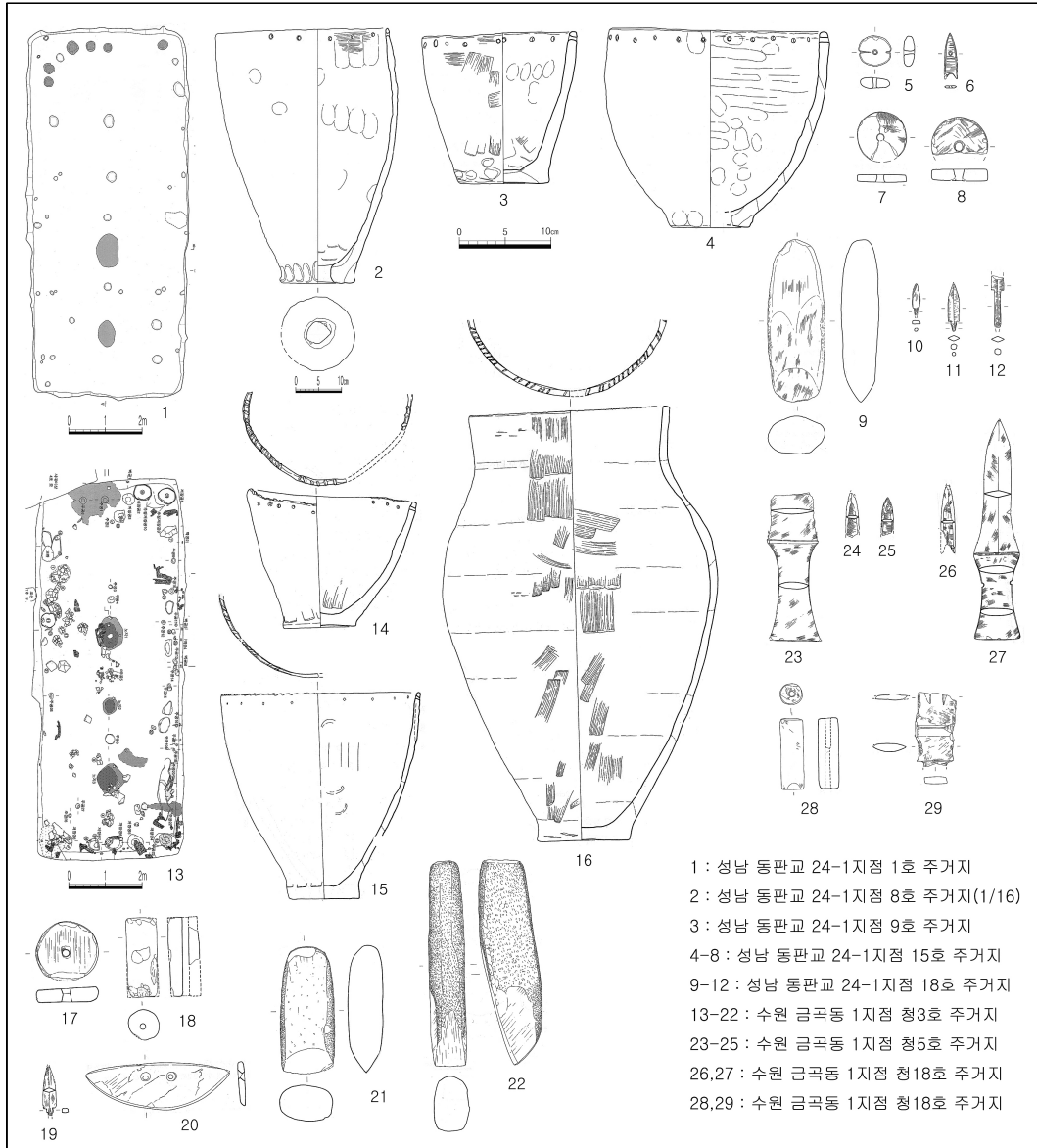


[도면11] 서울·경기지역 IV단계②(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혼암리나 역삼동유형의 유적에서 출토된다<sup>44)</sup>. 또한 직선거리로 500m 정도 떨어진 수영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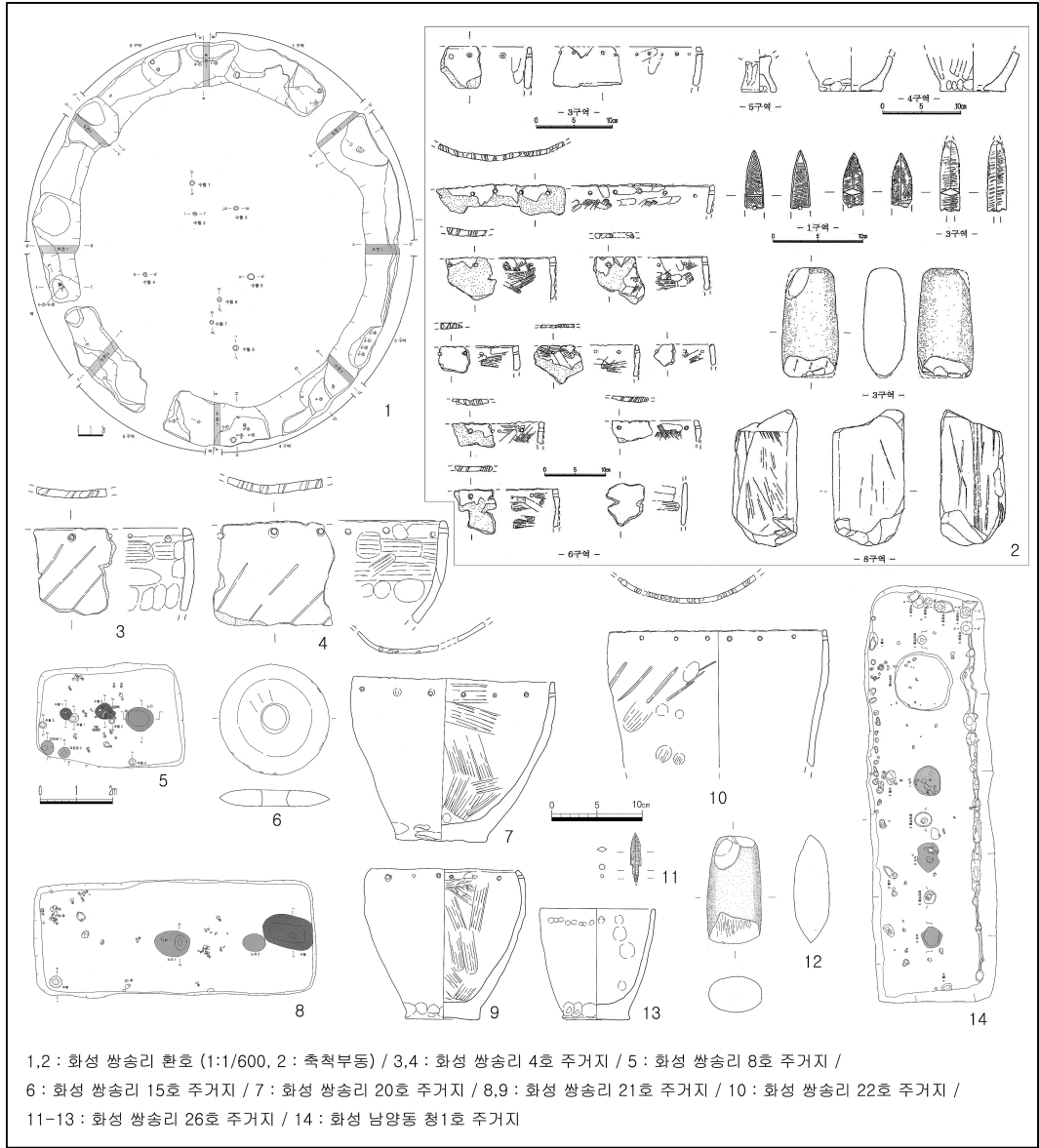
44) 서울·경기지역에서 삼각만입유공석축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파주 당하리1호, 여주 혼암리2·9·12호, 부천 고강동7호, 평택 토진리1호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은 혼암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기후반 내지 말에 해당하는 유적들이다.

적에서 역삼동유형의 주거지가 조사되어 상호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45)</sup>. AMS분석결과 2730±50, 2800±60, 2860±50의 결과가 도출되어 충분히 전기로 소급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金賢(2005)은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전·중기의 묘제를 다루면서 무문토기 시대 전기에도 토광묘가 사용되고 있으며, 중기 후반에 수가 늘어남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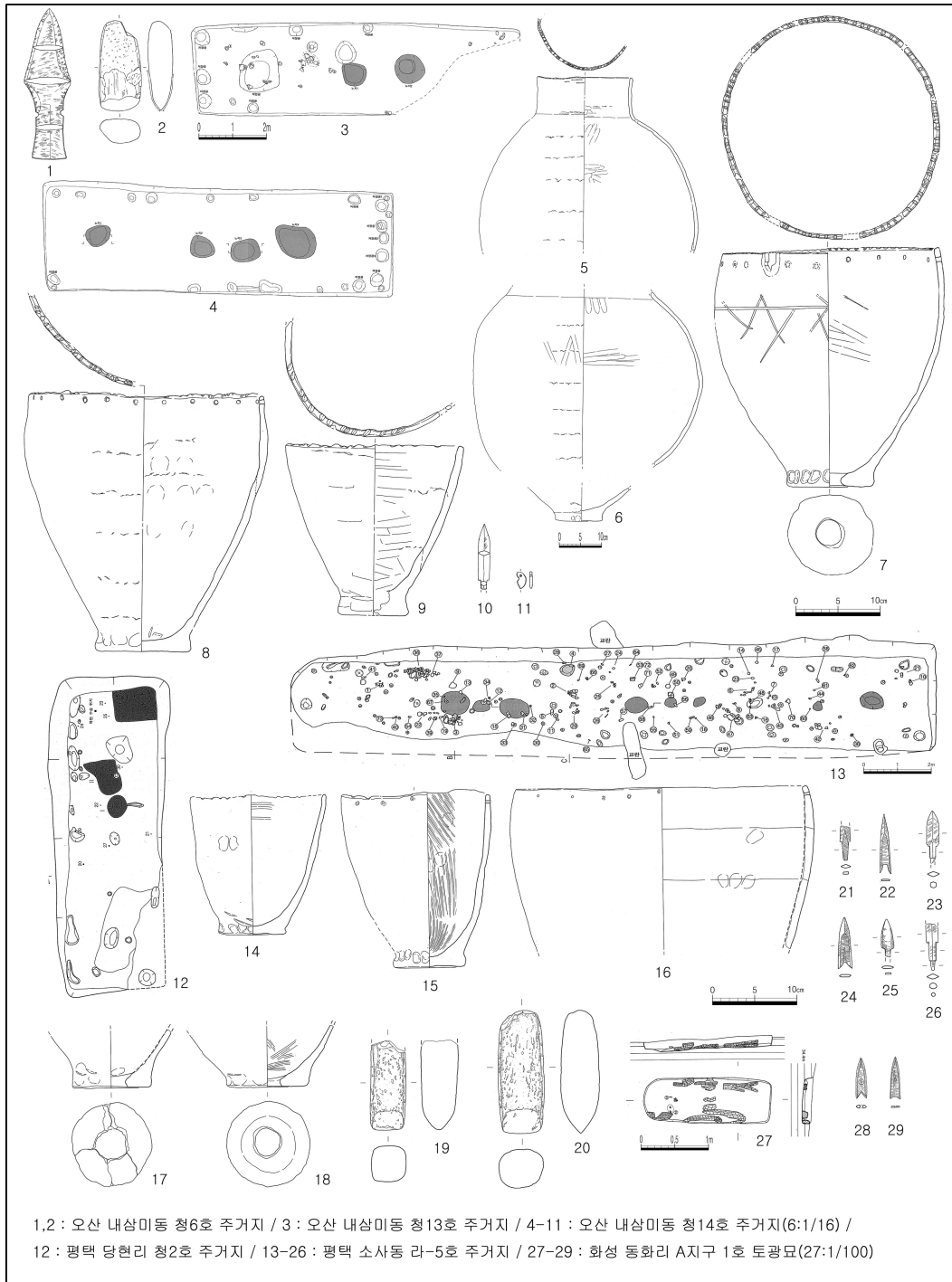


[도면12] 서울·경기지역 IV단계③(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등(별도표시)

45) 기호문화재연구원·제2서해안고속도로(주), 2012, 『華城 雙松里遺蹟』, 發掘調査報告 第22冊.



[도면13] 서울·경기지역 IV단계④(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도면14] 서울·경기지역 IV단계⑤(유구 1/200, 유물1/8 기준)-축척부동(별도표시)

## IV. 시기구분과 절대연대 제시

### 1. 시기구분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그 범위를 놓고 볼 때 돌대문토기 단순기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신석기적 요소인 이중구연토기까지를 포함하여 조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두 토기요소의 병행관계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편년에 근거하여 볼 것이냐라는 편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새롭게 출현하는 물질문화 요소를 획기로 삼아 시기설정을 하고자 하며, 아울러 절대연대측정치를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5시기(조기 전반·후반 / 전기 전반·중반·후반)로 설정한다.

먼저, 조기전반은 필자의 I-1단계에 해당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형(바닥너비 500~800cm) 중심의 방형계 주거지에 석상위석식의 노시설을 갖추고 있고, 토기는 돌대부가 이적된 돌대문토기 단독기에 해당한다. 석기는 삼각(만입)촉이 출토하며, 여기에 신석기적 요소인 환저토기가 존재하는 단계이다.

조기후반은 I-2단계에 해당한다. (초)대형(바닥너비 550~800cm) 중심의 방형계 주거지에 위석식과, 무시설식노를 갖추고 있고, 토기는 돌대부가 연결한 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류상과수형·이중구연토기가 함께 출토한다. 석기는 삼각만입촉과 합인의 장방형석도, 그리고 마제석검이 출토하는 단계이다. 즉, 주거지는 I-1단계보다 길이가 길어지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석상위석식노가 중심을 이루다가 위석식, 무시설식으로 노의 형태가 변화된다. 공렬토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두께가 0.5cm 미만인 석제방추차, 양 끝단에 'v'자형 홈이 있는 토제어망추 등은 I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추정되며, 시원적인 형태의 혈구가 있는 마제석검이 등장한다. 아울러 연하리유적이 돌대문토기의 색채가 강한 반면 동양동유적은 이중구연의 요소가 강한 특징이 있다.

전기전반은 II단계에 해당한다. 규모는 다양하지만 바닥너비 400~600cm 중심의 (장)방형계 주거지에 1~2기의 무시설식노를 갖춘 것이 중심이다. 토기는 이중구연 및 이중구연 단사선계의 가락동식토기 성행기이며, 혼암리식토기가 출현한다. 석촉은 여전히 삼각만입촉이 주류이며, 합인의 주형과 어형석도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이다. 즉,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I 단계가 방형 중심이었다면(I-2단계 장단비 크지 않은 장방형 존재) II단계에 들어서면서 장방형이 중심을 이루며, 세장방형도 추가된다. 규모는 I 단계가 중(대)형급이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소형이 추가되며, 지역별로 차이점이 관찰된다. 그러나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특징은 주거지 폭이 I-1·2단계가 500cm 이상에 집중되었다면, II단계는 400~600cm 중심으로 폭이 줄어

든다는 점이다. 노시설은 무시설식이 중심이지만 대성리의 석상위석식도 있다. 토기는 단독 이중구연토기보다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우세하며 팽이형토기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혼암리식토기와 공렬문 및 구순각목문이 새롭게 출현하는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외 석제방추차는 I 단계보다 다소 두꺼워지며(단면 두께 0.5cm내외), 어망추는 양 끝단을 타격한 형태가 I 단계에서 주류를 이루었다면 여기에 球形과 管形이 추가된다.

전기중반은 III단계에 해당한다. 규모나 평면형태는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바닥너비 300~500cm 사이의 (세)장방형계 주거지에 중·대형이 중심으로 2~3기의 무시설식노를 갖추고 기둥시설은 미확인과 벽주를 마련한 구조가 중심이지만 중심주혈이 나타난다. 토기는 이중구연 단사선계에 공렬문이 혼합된 혼암리식토기 성행기이다. 석기는 이단경식석촉과 이단병식석검, 그리고 편인의 장주형과 어형석도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이다. 즉, III단계의 주거지는 II단계가 (장)방형 중심이었다면 장단비 2.0~4.0 사이의 (세)장방형으로 길이가 길어지는 반면, 폭은 좁아진다. 토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에서 혼암리식토기 중심으로 바뀌며, 여기에 구순각목공렬토기와 구순각목 및 공렬토기의 출토율이 증가한다. 동시에 이중구연부의 문양형태가 단사선을 비롯하여 장사선, 단중선, 장중선, 거치문, ×자문으로 매우 다양해진다. 호형토기 역시 직립구연에 구형 중심의 동체부 조합에서 직립 및 외경구연에 역삼각형과 난형의 동체부 조합으로 변화한다. 석촉은 이단경촉이 중심이지만 삼각만입촉의 경우는 기부가 깊어진다. 그 외 석제방추차의 두께는 1.0cm 내외로 두꺼워지며, 토제어망추는 II단계와 마찬가지로 球形과 管形 중심에서 단추형이 추가된다.

전기후반은 IV단계에 해당한다<sup>46)</sup>.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중심으로 폭은 250~350cm중심(구릉입지)과 350~450cm중심(단구·충적입지)으로 양분된다. 규모는 소형과 중형 중심이며, 2~5기의 무시설식노를 갖추고 있다. 노의 반대편 단벽에는 작업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새롭게 출현하며, 벽주와 중심주혈이 주체를 이룬다. 토기는 구순각목문과 공렬문 중심의 역삼동식토기 성행기이다. 석기는 유구병식과 일단병식석검, 이단경식과 일단경식 석촉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환상석부와 주상편인석부가 출현하며, 쌍송리 환호와 동화리 토광묘처럼 제의 내지 경계의 기능이 강한 환호와 매장유구가 출현하는 단계이다. 즉, 계속해서 보여왔던 방형 주거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장단비 2.0~3.5 사이가 중심을 이룬다. 아울러 입지에 따른 주거지 바닥 폭이 차이를 보이면서 규모는 전체

46) IV단계를 모두 전기후반으로 설정할 경우 전기후반의 취락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전기후반의 주거지는 주거지의 구조, 특히 주거지 바닥너비, 중심주혈의 등장과 작업공으로 추정되는 수혈, 그리고 화재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출토유물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으로 III단계보다 소형화된다. 유물은 동체부가 타원형에 가까운 외반구연호가 증가하며, 석축은 이단경축의 단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특징과 일단경축의 출토율이 높아진다. 석도는 III단계와 동일하지만 단주형의 경우 인부의 직선화가 관찰된다. 그리고 새롭게 단면 반구상의 석제어망추가 추가되며, 비교적 대형의 관옥이 출토된다.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는 총 5단계로 구분되어졌으며, 각 단계는 조기전반(I-1단계)·후반(I-2단계), 전기전반(II단계)·중반(III단계)·후반(IV단계)으로 설정하였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물질문화의 변화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세장방형으로의 변화가 관찰되지만 전기중반을 기준으로 세장방형보다 장방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규모는 (중)대형→(초)대형→(중)대형→(중)소형으로 규모가 대형화되다가 전기전반에 지역적으로 규모의 차별화가 있는 후, 다시 소형화되면서 규격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주거지 너비는 약 500~800cm로 넓은 것이 유행하다가 점점 좁아져서 전기후반의 구릉에 입지한 주거지는 250~350cm까지 줄어든다. 노지는 조기의 경우 석상위석식과 위석식에서 전기로 이행하면서 무시설식으로 변화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노지의 수가 늘어난다. 기둥시설은 명확하지 않으나 벽주에서 중심주로의 변화가 관찰된다. 토기는 조기의 경우 미사리식의 돌대문토기가 표지유물이며, 전기는 가락동식토기 성행기→혼암리식토기 성행기→역삼동식토기 성행기로 정리할 수 있다. 석검은 조기후반에 시원적인 형태의 마제석검이 출현하지만 전기전반에는 팽이형토기 문화권에서 유행하는 유구경식석검이, 중반에는 이단병식, 후반에는 유구병식·일단병식·유경식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석촉은 전기전반까지 삼각(만입)촉이 유행하다가 중반에 이단경축, 후반에 이단경과 일단경축이 중심을 이루며, 삼각만입촉은 후반으로 가면서 기부가 깊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석도는 초기에는 합인의 장방형이, 전기에는 주형과 어형이 중심이지만 전반에는 합인이, 중반 이후에는 편인이 중심을 이룬다. 그 외 전기후반에 환상석부와 주상편인석부가 새롭게 출현하며, 석제방추차는 단면 두께가 얇다가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환호와 분묘도 전기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절대연대

조기전반(I-1단계)의 절대연대는 미사리 고려대011호가 유일한데, 일본역사민속박물관의 분석 결과 3360±40BP 값이 나왔다. 그러나 II단계의 연대값을 고려하고 향후의 자료축적을 기대하면서 잠정 3100BP 이전으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조기후반(I-2단계)은 연하리1호(3090±60BP, 3070±50BP, 3030±60BP, 3000±60BP, 2810±60BP), 정문리(2970±50BP), 동양동1지구 1호(3050±70BP)와 2호(2900±80BP)에서 절

대연대측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동양동1지구 2호는 그 규모나 내부시설이 명확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연하리1호도 5개의 측정값 중 동떨어진 연대값인  $2810 \pm 60$ 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3100~2950BP 정도에 집중하고 있다.

전기전반(II단계)은 총 9개 유구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인천 운서동Ⅲ유적5호 연대값을 제외하고는 2950~2850BP에 해당하며, 대부분 2950~2900BP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운서동Ⅲ유적5호는  $3370 \pm 50$ BP의 연대값이 도출되었으며, 인천 장금도 패총에서도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 층의 바로 윗층에서 측정된 연대가  $3250 \pm 60$ BP 값이 제시되었다<sup>47)</sup>. 이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위치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의 자료 축적에 따라 연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해 두면서 3000~2850BP 사이에 놓고자 한다.

전기중반(III단계)은 분석대상 중 11기 유구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 이목동1호와 울전동3호는 각각 4개와 2개의 연대값이 제시되었으나 연대값 간의 차가 400년과 170년으로 매우 크다. 혼암리7호는 기원후의 연대값이 제시되어 상기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반제리5호( $3020 \pm 80$ BP)와 현화리2호( $3110 \pm 140$ BP)를 제외<sup>48)</sup>하면 절대연대는 대부분 2900~2750BP 정도에 집중한다<sup>49)</sup>. 그러나 이목동1호와 울전동3호의 연대치를 고려한다면 연대가 상향되어 II단계와 병존하였거나 더 앞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요소의 토기가 공반출토 되며, II단계에는 공렬계 토기가 소수라는 점<sup>50)</sup>, 그리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II단계보다는 늦은 단계로 잠정 설정하고자 한다.

전기후반(IV단계)은 분석대상 유구 중 36기에서 총 68개의 절대연대값을 얻었다. 그러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한 유구에서 3개 이상의 값을 얻은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중간값을 선정하였으며, 2개의 결과값을 얻은 경우에는 고목효과<sup>51)</sup>를 줄이는 차원에

47) 물론, 이 절대연대값은 유적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으로 해양 리저버 효과일 가능성과 패총이라는 유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48) 양 유적 모두 공렬문이 제외된 이중구연+단사선과 이중구연+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어 혼암리식토기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구연부 폭이 넓기는 하지만 II단계의 이중구연계요소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49) 혼암리유적의 경우 7호( $1810 \pm 90$ ), 8호( $2696 \pm 160$ ,  $2666 \pm 160$ ,  $2541 \pm 150$ ), 12호( $2920 \pm 70$ ,  $2980 \pm 70$ ), 13호( $2290 \pm 60$ ,  $2110 \pm 60$ ), 14호( $2145 \pm 60$ ,  $2089 \pm 60$ )의 절대연대값이 나왔는데, 동떨어진 연대값을 제외하면 대략 그 중심은 2950~2700BP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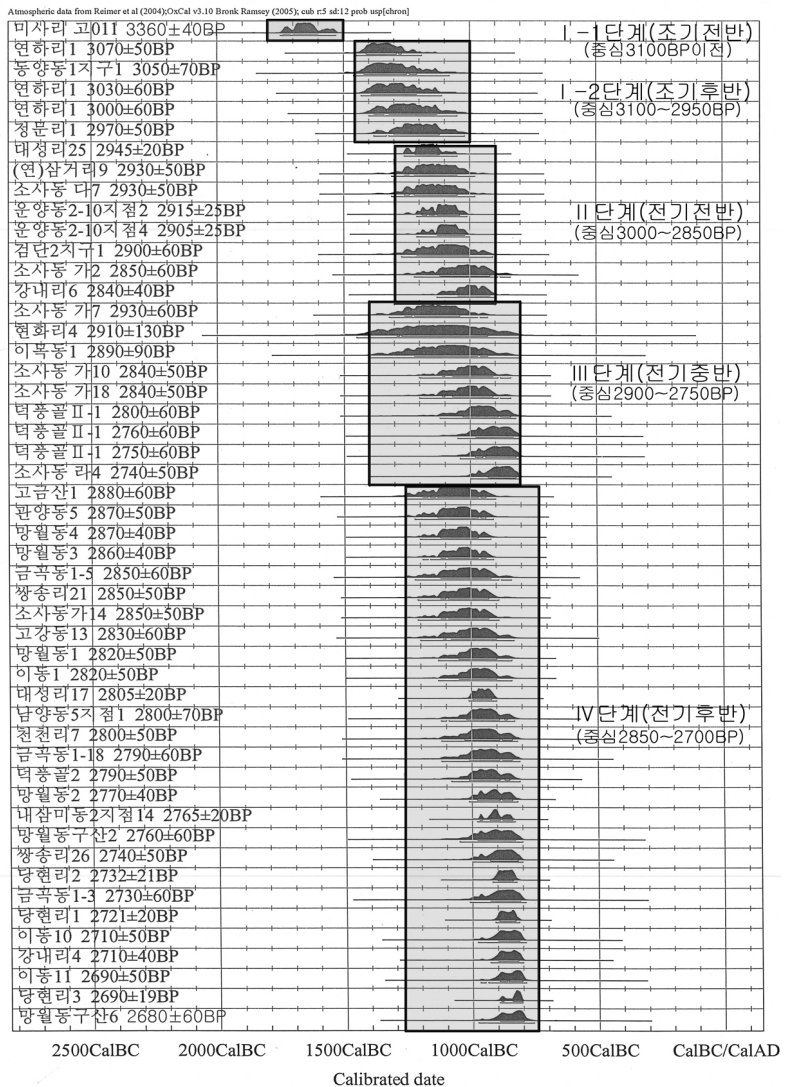
50) 서울·경기지역에서 고식의 공렬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宋滿榮 2010).

51) 분석자료 중 당현리1호와 2호에서 다년생인 탄화목재와 일년생인 종자에 대한 절대연대측정이 이루어졌다. 1호는  $2825 \pm 20$ BP(목재),  $2721 \pm 20$ BP(종자)값이, 2호는  $2790 \pm 20$ BP(목재),  $2732 \pm 21$ BP(종자)값이 측정되었다. 따라서 다년생의 목재와 일년생의 종자간에는 약 60~100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서 낮은 연대값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34개의 유효한 값을 얻었는데 모두 3140~2670BP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목감동1호(3020±50BP)와 천천리11호(3140±80BP)를 제외하면 대부분 2900BP 이하이고, 2600년대의 BP값도 6점이 측정<sup>52)</sup>되었으나 모두 2670BP 이상의 값이 나왔다. 따라서 대부분이 2900~2650BP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은 2850~2700BP로 위치시킬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초기전반(3100BP 이전)·후반(3100~2950BP), 전기전반(3000~2850BP)·중반(2900~2750BP)·후반(2850~2700BP)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전기전반(II단계)과 중반(III단계)은 절대연대측정값으로만 보편적인 동시기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자료축적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표1] 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절대연대 측정자료



52) 이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강내리5호(2670±40BP), 덕풍골1호(2680±50BP), 망월동 구산6호(2680±60BP), 관양동3호(2680±60BP), 이동11호(2690±50BP), 당현리3호(2690±19BP)가 있다.

[표2] 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 단계설정에 따른 시기설정 및 편년안

구분	단계		조기후반	조기전반	III단계	진기중반	진기후반
	I-1단계	I-2단계	I-1단계	II단계	III단계	III단계	IV단계
평면형태 바닥폭(cm) 규모	방형 500~800 소형, 중형, 대형	방형, 장방형 550~800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방형, 장방형 400~600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300~500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300~500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300~500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250~350(구룡/350~450(단구, 홍적)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주거지	총각지 적상위석식, 위석식 (?)	총각지, 구룡 위석식, 무시설식 無, 벽주	총각지(북·중·동부), 구룡(서·남부) 석상위석식, 무시설식(1-2), 無 無, 벽주, 중심주, 내측주	총각지, 구룡 무시설식(2-3), 無 無, 벽주, 중심주, 내측주	총각지, 구룡 무시설식(2-3), 無 無, 벽주, 중심주, 내측주	총각지, 구룡 무시설식(2-5), 無 無, 벽주, 중심주	총각지, 구룡 무시설식(2-5), 無 無, 벽주, 중심주
토기	증분토기적 요소 잔재(완자/태도) 돌대문토기 단독기 (돌대이적, 돌대연접)	돌대문토기(돌대연접) 절상돌대문토기 부상파수형토기 이중구연토기 출현	패이형토기 기락동식토기 성행기 혼암리식토기 출현 공립, 구순각목문, 출현	패이형토기 기락동식토기 성행기 혼암리식토기 다수 퇴화 이중구연화, 진행	기락동식토기 쇠퇴기 혼암리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립토기 다수 퇴화 이중구연화, 진행	기락동식토기 쇠퇴기 혼암리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립토기 다수 퇴화 이중구연화, 진행	기락동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립, 구순각목, 공립 중심 퇴화 이중구연화, 일부 지속
석기	석검 석촉 석도 가타석부 석제항추차	무(?) 삼각(만입) ? ? ?	유평식(시원적) 삼각만입 장방형(합인), 동부형 ? 단면두께 0.5cm이내 無 無	유구경식(패이형토기문화권) 삼각만입, 이단경, 일단경 역사다리형(합인·편인·주형·이형(합인)) ? 단면두께 0.5cm내외 無 無	이단평식 삼각만입, 이단경, 일단경 장주형·아형(편인) 성형석부 출현? 단면두께 1.0cm내외 無? 無?	이단평식, 유구평식, 일단평식, 유경식 삼각만입, 이단경, 일단경 장(단)주형·아형 성형, 활강, 주상편인 단면두께 1.0cm내외 원호(쌍송리) 토광표(동화리)	이단평식, 유구평식, 일단평식, 유경식 삼각만입, 이단경, 일단경 장(단)주형·아형 성형, 활강, 주상편인 단면두께 1.0cm내외 원호(쌍송리) 토광표(동화리)
유형	미사리유형 기락동유형	미사리유형, 기락동유형	기락동유형 패이형토기문화	기락동유형 패이형토기문화	혼암리유형	역삼동 I 유형	역삼동 I 유형
절대연대	3100BP이전	3100~2950BP	3000~2850BP	3000~2850BP	2900~2750BP	2850~2700BP	2850~2700BP
대표유적	하남 미사리 서A1·고 011·015·017·018	연하리1·13, 정문리, 동양 동1·2,	강내리6, 삼거리(연천)9, 삼거리(강 화)12, 대성리25·26, 감지동2, 기락동 1, 미사리 송A2·8, 검단2지구2구역1, 운서동III유적5, 장금도A배흥IV문화층, 학운리3-1지점1, 양곡1지구2·5, 문양 동2-10지점2-6, 부곡동II지구1, 소사동 가2·다3·7·7·라13	강내리6, 삼거리(연천)9, 삼거리(강 화)12, 대성리25·26, 감지동2, 기락동 1, 미사리 송A2·8, 검단2지구2구역1, 운서동III유적5, 장금도A배흥IV문화층, 학운리3-1지점1, 양곡1지구2·5, 문양 동2-10지점2-6, 부곡동II지구1, 소사동 가2·다3·7·7·라13	혼암리1·2·5·7·9·11, 미사리 송A1·4·9·고034, 탁골리II-1, 이 목동1, 울전동3, 봉명리1, 내삼미동 24·28·30, 반제리1·5·9, 만정리 2지점가2·4지점2, 현화리2·4, 소 사동가7·10·18·22·라4	강내리1·4·5, 삼거리(연)8, 당하리 (한), 당하리1·3(경기), 교하리1·2, 원 당동IV-가10, 양곡11·13, 고강동13, 대 성리11·13·16·17, 양수리1, 망월동 1~4, 탁골리1·2, 망월동(구산)1·2, 미 사리 원5, 송A5·10, 서5·6·7·9, 동 편교, 관양동3·5, 무감동1, 금곡동 3·5·12·18, 이동1·4·5·9·10·11, 대덕골4, 천천리1·6·7·11, 동학산, 고금산1, 쌍송리 원호, 주거지, 남양동5 지점1·6, 내삼미동6·13·14, 당현리II 1-3, 소사동가14·라2·5·28, 지제동1	강내리1·4·5, 삼거리(연)8, 당하리 (한), 당하리1·3(경기), 교하리1·2, 원 당동IV-가10, 양곡11·13, 고강동13, 대 성리11·13·16·17, 양수리1, 망월동 1~4, 탁골리1·2, 망월동(구산)1·2, 미 사리 원5, 송A5·10, 서5·6·7·9, 동 편교, 관양동3·5, 무감동1, 금곡동 3·5·12·18, 이동1·4·5·9·10·11, 대덕골4, 천천리1·6·7·11, 동학산, 고금산1, 쌍송리 원호, 주거지, 남양동5 지점1·6, 내삼미동6·13·14, 당현리II 1-3, 소사동가14·라2·5·28, 지제동1

## V. 맺음말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 한하여 청동기시대 조기-전기의 편년 수립을 시도해 보았다. 주 검토대상은 주거지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출토되는 유물을 통하여 단계를 설정한 후 시기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의문점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여하튼 이를 정리하면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는 총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는 조기전반(I-1단계 ; 3100BP 이전)·후반(I-2단계 ; 3100~2950BP), 전기전반(II단계 ; 3000~2850BP)·중반(III단계 ; 2900~2750BP)·후반(IV단계 ; 2850~2700BP)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근거가 미약하며, 논리적으로도 비약된 부분이 적지 않음을 인정한다. 특히 물질문화의 변화상과 절대연대측정 값을 비교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冒頭에서 언급하였듯이 편년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며, 매우 고단하고 어려운 작업임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명쾌한 편년수립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혼선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한 금번 자료가 한반도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연구자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냉철한 비판을 바라는 마음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민정, 2009, 「남강유역과 북한 청동기시대의 비교」『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韓國靑銅器學會.
- 孔敏奎,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韓國靑銅器學報』第八號, 韓國靑銅器學會.
-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 지역과의 병행관계」『韓國靑銅器學報』第四號, 韓國靑銅器學會.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한국고고학보』69.
- 金材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고고학』5-1, 서울경기고고학회.
- \_\_\_\_\_, 2010,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前期 토기양상 검토」『전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식 설정』, 2010년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 한국청동기학회.
- 金賢, 2005, 『慶南地域 無文土器時代 무덤에 대한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현식, 2008, 「호서지방 전기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嶺南考古學』44.
-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弥生文化の研究3』弥生土器Ⅰ, 雄山閣.
- 朴淳發, 2002, 「錦山 水塘里 靑銅器時代 聚落의 時間的 位置」『錦山 水塘里遺蹟』,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_\_\_\_\_, 2003, 「漢沙里類型 形成考」『湖西考古學』第9輯, 湖西考古學會.
- 朴榮九, 2009, 「南部東海岸地域 無文土器文化 展開樣相-浦項地域을 中心으로-」『嶺南考古學』51, 嶺南考古學會.
- \_\_\_\_\_, 2012, 「中部地域 突帶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江原嶺西地域을 中心으로-」『韓國上古史學報』第75號, 韓國上古史學會.
- 박진일, 2006, 「서울·경기지방 점토대토기문화 試論」『고고학』5-1.
- 朴辰一,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韓國靑銅器學報』創刊號, 韓國靑銅器學會.
- 배진성, 2012, 「柱狀片刃石斧와 有溝石斧의 再檢討」, 『청동기시대 석기의 편년』한국청동기학회 제2회 석기분과 워크숍, 한국청동기학회.
- 徐吉德, 2006, 『원형점토틈토기의 변천과정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

- 교대학원 역사학과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0,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前期 토기양상 검토에 대하여-토론문-」 『전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식 설정』, 2010년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 한국청동기학회.
- 宋滿榮, 1995,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的 編年과 性格』, 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0, 『韓半島 中部地域 聚落의 發展과 政治體의 成長-靑銅器時代~漢城百濟期를 中心으로-』, 崇實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 論文.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
- \_\_\_\_\_,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南韓 靑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_\_\_\_\_, 2010, 「韓半島 靑銅器時代의 時期區分」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李白圭, 1974,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第三輯, 韓國考古學會.
- 李眞旼, 2004, 「중부지역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韓國考古學報』54.
- 李亨源,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7a,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제1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07b, 「京畿地域 靑銅器時代 墓制 試論」 『고고학』제6권 제2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_\_\_\_\_,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大學院 考古學科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0a,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時·空間的 正體性」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I)』,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0b,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0년대 이후 경기지역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고고학』9-2, 중부고고학회.
- 李弘鍾,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林炳泰, 1969,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年代」 『李弘植博士 回甲記念 韓國史學論叢』.

- 정원철, 2012, 「중부지역 돌대문토기의 지역양상」『남한지역 초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상』, 한국청동기학회 2012년 토기분과 워크샵, 한국청동기학회.
- 정한덕,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에 대한 토론」『湖西考古學』創刊號.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韓國考古學報』57.
- 천선행, 2007, 「조기 설정과 시간적 범위」『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제1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崔承希, 2004, 『韓半島 出土 環狀·多頭石斧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 文學碩士學位論文.
- 최종모·김권중·홍주희, 2006, 「각형토기문화유형의 연구」『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대환, 2012, 「금강 중류역 돌대문토기의 양상」『남한지역 초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상』, 한국청동기학회 2012년 토기분과 워크샵, 한국청동기학회.
- 홍주희, 2012, 「청동기시대 조기의 석기편년」, 『청동기시대 석기의 편년』한국청동기학회 제2회 석기분과 워크숍, 한국청동기학회.
- 後藤直, 1973, 「南朝鮮の無文土器-その變遷のついて-」『考古學研究』75.

기타 발굴조사보고서 생략.

[분석대상 참고자료]

I-1단계 분석자료

유적	입지	장축*단축(cm)		노지	기둥 시설	유물	절대연대 (BP)
		평면	규모				
하남 미사리	서울대A-1	층적	650*550 1.18(방) 35.8(중)	위석1+석상 위석1	無	각목돌대문(이격+연접), 환저토기, 삼각(단입)촉, 석도편(양인), 토제어망추·방추차, 곡옥	-
	고려대011	층적	670*600 1.12(방) 40.2(중)	석상위석1	無	각목돌대문(연접), 환저토기	3360±40 <sup>53)</sup>
	고려대015	층적	840*840 1.00(방) 70.5(대)	석상위석2	無	각목돌대문(이격), 환저·평저토기, 무문양토기	-
	고려대017	층적	310*210 1.47(방) 6.5(소)	無	無	각목돌대문(이격+연접)	-
	고려대018	층적	510*510 1.00(방) 26.0(중)	석상위석1	?	각목돌대문(이격), 환저토기	-

I-2단계 분석자료

유적	입지	장축*단축(cm)		노지	기둥 시설	유물	절대연대 (BP)
		평면	규모				
가평 연하리	1	층적	1,400*580 2.41(장) 81.2(초)	위석1	無	각목돌대, 절상각목돌대,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 유경호, 장경호, 장방형·줄형석도, 삼각만입촉, 일단경축, 석제방추차, 토제어망추	3030±60 3070±50 3000±60 2810±60 3090±60
	13	층적	960*790 1.22(방) 75.8(초)	무시설1?	無	구순각목+류상과수부토기, 각목돌대문, 삼각만입촉, 토제방추차	-
화성 정문리	1	구릉	670*550 1.22(방) 36.9(중)	무시설1	벽주 (?)	각목돌대문, 개관형과수부(절상무각목), 토제방추차	2970±50
인천 동양동	1지구1	구릉	1,170*630 1.86(장) 73.7(대)	無	벽주 (?)	무각목돌대문,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 삼각만입촉, 유혈구석검, 이형석도, 동북형석도(주격칼)	3050±70
	1지구2	구릉	380*310 1.23(방) 11.8(소)	無	無	무각목돌대문, 이중구연+단사선, 삼각만입촉, 주형석도	2900±80

II 단계 분석자료

유적	입지	장축*단축(cm)		노지	기둥 시설	유물	절대연대 (BP)
		평면	규모				
연천 강내리	6	단구	1,350*460 2.93(세) 62.1(대)	무시설4	내측주	이중구연+단사선문, 공렬, 삼각만입촉, 일단경축, 일단경축, 장주형석도, 줄형석도, 석제방추차	2840±40
연천 삼거리	9	단구	(1,270*560) 2.28(장) 71.1(대)	무시설3	無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공렬, 호형토기, 반완형과수부토기, 갈색마연장경호, 삼각만입촉, 주형석도, 석제방추차	2930±50
강화 삼거리	1	구릉	370*172 2.15(장) 6.4(소)	?	벽주?	이중구연+단사선, 팽이형토기 저부, 유구경식마제석검, 편인석부, 환상석부, 일단경축, 석제방추차	-
가평	25	층적	940*(735)800추정	석상	無	이중구연외반, 마연장경호, 합인석부 토제어망추	2945±20

53) 환저토기, 일본역사민속박물관 분석

대성리	26	총적	1.18(방)	75.2(초)	위석1	無	토제방추차	이중구연외반, 석제추	-
			630*440	석상위석1 +무시설1?					
광주 장지동	2	총적	?	?	?	?		이중구연(팽이형토기), 이중구연+단사선	-
서울 가락동	1	구릉	1,000*700	70.0(대)	?	?		이중구연+단사선, 호형토기, 삼각만입축, 석제방추차	-
하남 미사리	송실대A2	총적	650*340	무시설1	無			각목돌대문, 이중구연+단종선,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일단경축, 석착, 석거, 토(석)제어망추	-
	송실대A8	총적	460*250	無	無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공렬, 이단경축	-
인천 검단	2지구1	구릉	600*240추정	2.50(장)	14.4(소)	?	벽주?	이중구연, 이단경축, 무경축	2900±60
인천 운사동	III유적5	구릉	630*370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종선, 반월형석도	3370±50
김포 학운리	3-1지점1	구릉	400*392	無	無			이중구연토기, 합인석부, 방추차	-
김포 양곡	1지구2	구릉	400*260	無	중심1			이중구연+구순각목,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편인석부	-
	1지구5	구릉	585*(205)380추정	무시설1?	벽주?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거치문, 공렬, 합인석부	-
김포 운양동	2-10지점2	구릉	334*225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사선문	2915±25
	2-10지점3	구릉	?	?	?	無		이중구연+단사선문	-
	2-10지점4	구릉	?	?	?	無		이중구연+단사선문, 합인석부	2905±25
	2-10지점5	구릉	?	?	?	無		이중구연+단사선문	-
	2-10지점6	구릉	484*(370) 400추정	1.21(방)	19.4(소)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사선문
군포 부곡동	II 지구1	구릉	970*560	무시설3	벽주?			이중구연+단사선, 토제방추차	-
평택 소사동	가2	구릉	?	?	?	?		이중구연	2850±60
	다3	구릉	?	?	무시설2	無		이중구연+단사선	-
	다7	구릉	?	?	무시설1	?		이중구연+단사선, 무문양삼발	2930±50
	라13	구릉	788*426	무시설2	無			이중구연(폭 넓음)+단사선, 공렬	-

III 단계 분석자료

유적	입지	장축*단축(cm)		노지	기둥 시설	유물	절대연대 (BP)
		평면	규모				
여주 혼암리	1	구릉	800*400	無	無	이중구연+거치문, ×자문, 홍도, 대부토기, 삼각만입축, 유희구석검편?, 합인석부	-
	2	구릉	690*(320)	無	無	이중구연+단사선+공렬, 구순각목+공렬, 대부토기, 일단경축, 석제방추차	-
	5	구릉	(470)*390	무시설식 2	벽주	이중구연+단사선+공렬, 단사선+공렬, 구순각목, 대부토기,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
	7	구릉	950*(280)350추정	無	중심주	이중구연+단종선+구순각목,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1810±90

	9	구릉	690*330 2.09(장) 22.8(중)	?	?	이중구연+단사선, 단사선, 공렬,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편인석부, 토제어망추	-	
	11	구릉	(498*245) (장)? (중)?	無	無	이중구연+단사선+공렬,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 공렬,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토제어망추	-	
하남 미사리	송실대 A1	층적지	1,220*340 3.59(세) 41.5(중)	무시설2	無	이중구연+단사선+공렬,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외반구연공렬, 소형발, 마연토기,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합인석부, 석(토)제어망추	-	
	송실대 A4	층적지	1,340*360 3.72(세) 48.2(대)	무시설3	無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소형발, 이단병식석검편, 삼각만입축, 합인석부, 석제어망추	-	
	송실대 A9	층적지	1,130*330 3.42(세) 37.3(중)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 이중구연+단사선+공렬,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소형발, 마연토기(평저), 삼각만입축	-	
	고려대 034	층적지	1,760*430 4.09(세) 75.7(초)	무시설3	無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마연토기	-	
하남 덕풍골 II	1	구릉	585*220 2.66(장) 12.9(소)	위석1?	벽주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일단경축	노지 2880±60 2750±60 2760±60	주거지 2750±60 2800±60 2760±60
수원 이목동	1	구릉	1,480*660 2.24(장) 97.7(초)	무시설2	중심주 내측주	단사선+구순각목+공렬, ×자문+구순각목+공렬, 단사선+구순각목, 단종선, 구순각목, 토(석)방추차, 이단경축, 어형석도, 부리형석기	2890±90 3160±80 2960±60 2760±50	
수원 율전동	3	구릉	600*(170)300추정 2.00(장) 18.0(소)	무시설1	無	구순각목+공렬+×자문, 구순각목+공렬	3160±60 2990±40	
용인 봉명리	1	구릉	(1,456)1,600추정*395 4.05(세) 63.2(대)	무시설2	無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대부토기, 석제방추차, 반월형석도	-	
오산 내삼미 동	2지점 24	구릉	1,460*320 4.56(초) 46.7(대)	무시설4	無	이중구연+공렬+×자문, 구순각목+공렬, 공렬, 적색마연토기, 합인석부, 편인석부, 장주형·어형석도	-	
	2지점 28	구릉	1,260*300 4.20(세) 37.8(중)	무시설2	無	이중구연+공렬, 공렬+장사선, 공렬, 합인석부, 이단경축	-	
	2지점 30	구릉	2,230*320 6.97(초) 71.4(대)	무시설6	無	이중구연+(장)단사선+공렬, 이중구연+장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대부토기, 호형토기, 이단경축?, 편인석부, 합인석부, 반월형석도	-	
안성 반제리	1	구릉	310*(110)220추정 1.41(방) 6.8(소)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사선	-	
	5	구릉	1,020*(382)500 추정 2.04(장) 51.0(대)	무시설2	벽주?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3020±80	
	9	구릉	444*380 1.17(방) 16.9(소)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공렬, 구순각목	-	
안성 만정리 신기	2지점 가2	구릉	425*300 1.42(방) 12.8(소)	무시설2	벽주 중심주	이중구연+단사선+공렬, 이중구연+거치문	-	
	4지점 2	구릉	880*360 2.44(장) 31.7(중)	무시설2	?	이중구연+단사선+공렬, 이중구연+단사선, 거치문, 구순각목+공렬, 대부토기, 이단경축	-	
평택 현화리	2	구릉	1,130*490 2.31(장) 55.4(대)	무시설2	無	거치문+구순각목, 구순각목+공렬, 대부토기	3110±140	
	4	구릉	1,010*500 2.02(장) 50.5(대)	무시설1?	無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공렬, 합인석부	2910±130	
평택 소사동	가7	구릉	1,249*346 3.61(세) 43.2(중)	무시설4	無	퇴화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렬	2930±60	
	가10	구릉	1,442*374 3.86(세) 53.9(대)	무시설3	無	×자문+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공렬, 공렬, 소형발,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합인석부, 편인석부	2840±50	

가18	구릉	1,557*314		무시설3	?	이중구연+장사선, 구순각목+공렬, 대부토기, 단주형·졸형석도, 석계방주차	2840±50
		4.99(초)	48.9(대)				
가22	구릉	?	?	무시설1	?	이중구연+X자문+구순각목+공렬	-
라4	구릉	2,167*400		무시설6	벽주	장종선+구순각목+공렬, 단사선+공렬,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단사선(호형), 성형석부, 이단병식석검, 장주형·졸형석도	2740±50
		5.42(초)	86.7(초)				

IV단계 분석자료

유적	입지	장축*단축(cm)		노지	기둥 시설	유물	절대연대 (BP)
		평면	규모				
연천 강내리	1	단구	1,980*400 4.95(초) 79.2(초)	무시설5	중심주 벽주	유구경식석검, 석창, 일단경축, 주상편인석부	-
	4	단구	1,150*420 2.74(세) 48.3(대)	무시설4	중심주 벽주	일단경축, 주상편인석부(소형)	2530±40 2710±40
	5	단구	920*380 2.42(장) 34.9(중)	무시설2	중심주 벽주	삼각만입축, 유구경식석검, 합인석부	2670±40
연천 삼거리	8	단구	1,020*310 3.29(세) 31.6(중)	무시설2	無	구순각목토기, 공렬토기, 유헤구유구병식석검, 장주형석도, 합인석부,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
파주 당하리	1(漢)	구릉	1,160*370 3.14(세) 42.9(중)	무시설3	벽주	외반구연호, 구순각목, 공렬, 무문양, 환상석부,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일단경축	-
파주 당하리	1	구릉	850*(360) 2.36(장) 30.6(중)	무시설1?	벽주?	공렬, 무문양, 외반구연,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
	3	구릉	850*(261)340추정 2.50(장) 28.9(중)	무시설2	벽주?	공렬, 무문양,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일단경축	-
파주 교하리	1	구릉	960*320 3.00(세) 30.7(중)	무시설2	벽주, 중심주	공렬, 무문양, 반월형석도, 편인석부,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일단경축	-
	2	구릉	? ?	?	벽주, 중심주		-
인천 원당동	IV-가10	구릉	550*300 1.83(장) 16.5(소)	無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일단경축, 장주형석도	-
김포 양곡	11	구릉	470*(244)300추정 1.57(장) 14.1(소)	무시설1	중심주	관옥	-
	13	구릉	1,080*400추정 2.70(세) 43.2(중)	무시설3	중심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
부천 고강동	13	구릉	1,820*400 4.55(초) 72.8(대)	무시설?	중심주+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이단병식석검, 편인석부, 삼각만입축, 일단경축,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주상편인석부, 관옥, 곡옥	2830±60 2680±80 2860±40
가평 대성리	11	층적	730*340 2.15(장) 24.8(중)	무시설2	無	공렬토기, 호형토기, 이단경축, 졸형석도, 유경식석검	-
	13	층적	980*360 2.72(장) 35.3(중)	무시설3	無	공렬토기, 호형토기, 편인석부, 단주형·어형석도, 석계방주차	-
	16	층적	530*285 1.86(장) 15.1(소)	무시설3	無	無	-
	17	층적	620*300 2.06(장) 18.6(소)	무시설2	無	공렬토기, 호형토기, 이단경축	2805±20
양평 양수리	1	층적	? ?	무시설?	?	공렬, 석창, 삼각만입, 일단경축, 반월형석도	-
하남 망월동	1	구릉	800*280 2.86(세) 22.4(소)	무시설1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공렬, 외반구연토기, 이단경축, 일단경축, 석제어망추(양끝타격), 관옥	2720±30 2820±50 2960±70

	2	구릉	950*(230)300추경 3.16(세) 28.5(중)	무시설1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석(토)제어망추(양끝타격, 관형, 단추형)	2770±40
	3	구릉	? ?	無	無	공렬, 토제어망추(관형, 단추형)	2860±40
	4	구릉	360*180 2.00(장) 6.5(소)	無	無	공렬, 이단경축, 반월형석도, 석창, 토제어망추(관형)	2870±40
하남 덕풍골	1	구릉	? ?	?	벽주	구순각목+공렬	2680±50 2800±50 2550±50
	2	구릉	1,000*240 4.17(세) 24.0(중)	무시설2?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일단경축, 석검편	2840±50 2790±50 2870±50 2800±60 2780±60 2670±60
하남 망월동	구산2	구릉	? ?	무시설2	벽주	공렬, 무문양, 반월형석도	2760±60
	구산6	구릉	? ?	?	벽주	이단경축, 일단경축	2680±60
하남 미사리	한양대5	층적	1,800*480 3.75(세) 86.4(초)	?	無	구순각목, 공렬	-
	승실대A5	층적	635*350 1.81(장) 22.2(중)	無	無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이단경축, 일단경축	-
	승실대A10	층적	710*340 2.09(장) 24.1(중)	무시설1	無	공렬, 대부토기	-
	서울대5	층적	800*355 2.25(장) 28.4(중)	무시설2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무문	-
	서울대6	층적	1,010*380 2.66(장) 38.4(대)	무시설2	無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호도, 일단경축, 무경축	-
	서울대7	층적	1,300*435 2.99(세) 56.6(대)	無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
	서울대9	층적	610*350 1.74(장) 21.4(소)	무시설1	無	호형토기,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무문, 대부토기	-
성남 동관교	21-3 지점1	구릉	970*410 2.37(장) 39.8(중)	무시설2	중심주 벽주	일단경축, 방추차	-
안양 관양동	3	구릉	830*270 3.07(세) 22.4(소)	무시설2	중심주	구순각목+공렬, 공렬	2680±60
	5	구릉	(1,075)1,200*320 3.75(세) 38.4(대)	무시설3	중심주	구순각목+공렬, 공렬, 소형발형토기, 이단경축	2870±50
시흥 목감동	1	구릉	1,440*325 4.43(세) 46.8(대)	무시설?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공렬, 외반구연, 일단경축	2930±80 3020±50 3060±80
수원 금곡동	1-3	구릉	960*360 2.67(장) 34.6(중)	무시설3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호형토기+구순각목, 이단경축, 합인석부, 주상편인석부, 반월형석도, 방추차, 관옥	2730±60
	1-5	구릉	1,090*335 3.25(세) 36.5(중)	무시설3	벽주	구순각목+공렬, 일단병식석검, 삼각만입축?	2850±60
	1-12	구릉	670*270 2.48(장) 18.1(소)	무시설2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유구병식석검, 삼각만입축	2890±60
	1-18	구릉	1,270*380 3.34(세) 48.3(대)	무시설3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이단병식유혈구석검, 합인석부, 주상편인석부, 방추차, 관옥	2790±60
의왕 이동	1	구릉	720*340 2.12(장) 24.5(중)	무시설1	벽주	구순각목+공렬	2820±50 2690±50 2820±50
	4	구릉	1,750*320 5.47(초) 56.0(대)	무시설식4	벽주	유구병식석검	-

102 •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5	구릉	760*260 2.92(세)   19.8(소)	無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주상편인석부	-
	9	구릉	640*340 1.88(장)   21.8(소)	무시설1	벽주	구순각목+공렬	-
	10	구릉	660*280 2.36(장)   18.5(소)	무시설1	벽주	구순각목+공렬, 공렬	2750±50 2710±50
	11	구릉	720*340 2.12(장)   24.5(중)	무시설1	벽주	구순각목+공렬	2690±50 2740±50
용인 대덕골	4	구릉	1,730*350 4.94(초)   60.5(대)	무시설3	벽주?	구순각목+공렬	2920±80
화성 천천리	1	구릉	?   ?	무시설5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합인석부	-
	6	구릉	?   ?	무시설4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무문양	2800±40, 2890±40 2900±40, 2980±60
	7	구릉	2,830*360 7.86(초)   101.8 (초)	무시설 11	벽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유공저부토기,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일단경축, 반월형석도, 주상편인석부, 합인석부, 편인석부, 성형석부	2900±60 2770±40 2850±60 2800±60
	11	구릉	480*230 2.09(장)   11.0(소)	무시설1	無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무문양, 유공저부토기	3140±80
화성 고급산	1	구릉	960(280)380추정 2.52(장)   36.5(중)	무시설3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적색마연호, 반월형석도, 방추차	2880±60 2940±60
화성 쌍송리	7	구릉	440*250 1.76(장)   11.0(소)	무시설1	?	구순각목+공렬, 무문양	340±40
	8	구릉	370*260 1.42(장)   9.6(소)	무시설1	중심주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무문양	-
	21	구릉	745*305 2.44(장)   22.7(소)	무시설2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2850±50
	26	구릉	2,620*420 6.24(초)   110.0 (초)	무시설5	벽주	구순각목+공렬+단사선,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대부토기,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일단경축, 반월형석도, 합인석부	2750±50 2710±50 2740±50
화성 남양동	5지점1	구릉	(850)1,100*320 3.44(세)   35.2(중)	무시설3	無	구순각목+공렬, ×자문+공렬, 구순각목, 공렬	2830±50 2770±50 2800±50
	6지점1	구릉	1,100*275 4.00(세)   30.3(중)	무시설3	중심주 벽주	구순각목+공렬, 공렬,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
오산 내삼미 동	2지점6	구릉	1,265*260 4.87(초)   32.9(중)	무시설4	無	유구병식석검, 합인석부, 반월형석도	-
	2지점13	구릉	950*255 3.73(세)   24.2(중)	무시설2	無	장사선+공렬+구순각목, 구순각목+공렬, 이단경축	-
	2지점14	구릉	1,020*285 3.58(세)   29.1(중)	무시설3	벽주?	퇴화이중구연+구순각목+공렬+×자문,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곡옥	2765±20
평택 당현리	1	구릉	2,120*280 7.57(초)   59.4(대)	무시설6	無	이단경축	2721±20(종자) 2825±20(목재)
	2	구릉	900*270 3.33(세)   24.3(중)	무시설1	無	구순각목, 일단경축	2732±21(종자) 2790±20(목재)
	3	구릉	960*280 3.42(세)   26.9(중)	무시설3	無	구순각목	2690±19
평택 소사동	가14	구릉	1,022*345 2.96(세)   35.3(중)	무시설3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이단경축	2850±50
	라2	구릉	755*280 2.69(장)   21.1(소)	무시설1	無	구순각목, 공렬	-

	라5	구릉	1,880*310 6.06(초)   58.3(대)		무시설8	?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 저부투공토기, 삼각만입축, 이단경축, 일단경축	-
	라28	구릉	1,035*320 3.23(세)   33.1(중)		무시설4	無	구순각목+공렬, 공렬, 유공저부토기	-
평택 지제동	1	구릉	?	?	무시설?	?	구순각목+공렬, 공렬, 이단경축, 일단경축, 환상석부	2700±180